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특집

최첨단 의료장비로 무장한 '순천향'

부자(父子)를 살린 감동 스토리
'어쿤' 순천향, 캄보디아에 순천향사랑 심다
거리를 노랑게 물들인 '썬플라워 캠페인'



2014

통합 의료원보 Vol.25



가을 사랑

글 | 도종환 사진 | 이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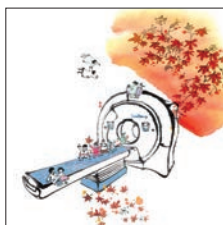
당신을 사랑할 때의 내 마음은
가을 햇살을 사랑할 때와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바람 부는 저녁 숲이었으나
이제 나는 은은한 역새 하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때의 내 마음은
눈부시지 않은 갈꽃 한 송이를
편안히 바라볼 때와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끝없이 무너지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조용히 다시 만나게 될
아침을 생각하며 저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가을 햇살을 사랑하는 잔잔한 넉넉함입니다



표지설명
 순천향의 최첨단 의료장비로
 치료받은 환우들이
 가을단풍 아래서 가족과 함께
 즐겨워하는 모습을 담았다.
작가·미호

CONTENTS

통합 의료원보 Vol.25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PHOTO ESSAY

가을 사랑

Feature

- 02 special1 최첨단 의료장비로 무장한 '순천향'
- 06 special2 감동스토리_ '나를 살린 순천향'
- 08 issue1 실명원인 '황반변성' 치유캠페인
- 10 issue2 부천병원, 환자 맞춤형 '다학제 통합진료' 시작
- 12 focus 순천향의료원, 한국-캄보디아 메디컬트레이닝센터 오픈

Confidence

- 14 history 후학·지인들, 서석조 박사를 말하다 10
- 16 special family 이령경 구미병원 약제과 사원
- 18 field 병원 24시, 서울병원 '심혈관센터'
- 22 doctor 이문수 천안병원장
- 24 new medicine1 십이지장 치환술
- 26 new medicine2 치료기관지내시경 레이저 치료
- 28 new medicine3 뇌동맥류 환자 뇌혈관 내 수술 시행
- 30 visit 동문탐방 - 박래경 순천향의대 4회 구미병원장
- 32 medi column 바바리맨 증세
- 34 knowledge1 황반변성 치료 및 예방법
- 35 knowledge2 독버섯 바로 알기
- 36 knowledge3 유전자 검사 진행 어떻게 하나
- 37 knowledge4 대장내시경 검사

Communion

- 38 romance 거장들의 스캔들 11 원호 대사 & 요석 공주
- 40 essay 일흔의 훈장, 옛 제자를 만나다
- 42 italian restaurant 그란구스토 (GRAN GUSTO)
- 44 global issue '에볼라' 공포
- 46 travel 김진국 교수의 걷기 예찬
- 48 book <순천향대학교병원 신춘문예 공모 수상집>
- 49 movie & stage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필 내한 공연

Communication

- 50 news 순천향 뉴스
- 54 ob news 순천향의대 동창회 소식
- 57 schedule 진료 일정표
- 58 letter of thanks 감사 편지



<순천향> 애독자에게 알림

<순천향>에서는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차원에서 애독자 여러분의 기고와 수기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물론 환자와 가족, 일반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연락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기획실 02)709-9592 FAX 02)709-9594
 E-mail: baekju1@naver.com





최첨단 의료장비로 무장한 '순천향'

해외 환자까지 가고 싶은 병원...인술과 의술의 조화

환자가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 장비의 보유 현황을 우선으로 꼽을 것이다. 순천향대병원은 이와 같이 환자가 우선하는 인술과 의술의 끊임없는 진화로 글로벌 병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의료원 산하 병원의 최첨단 의료장비는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호에는 순천향 중앙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최첨단 의료장비와 인프라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들여다 본다.

정리_편집부

서울
병원

인피니티 · 사이버나이프, 모든 방사선 수술과 치료를 한 곳에서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기존의 선형가속기와 방사선 로봇 수술 장비인 사이버나이프, 2013년 7월 도입한 최신형 방사선 암치료기 인피니티를 연계해 현존하는 모든 방사선 치료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사이버 나이프는 칼 대신 방사선을 조사해 뇌종양 및 전신의 악성 종양(암)을 제거하는 첨단 수술 장비이다. 개복, 절개, 통증을 동반하는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 없고 마취나 수혈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부작용과 합병증도 적다. 병변의 움직임과 환자가 숨을 쉴 때 움직이는 체의 움직임까지 고려해 실시간으로 병변을 추적하는 최신 시스템을 갖췄다. 정상 조직에 피해가 적고, 종양의 위치와 형태에 상관없이 전신 치료가 가능하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복잡한 종양도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 치료 후 추가 치료 또는 재치료, 분할 치료가 가능해 크기가 큰 종양이나 복잡한 신경 근처에 있는 병변의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암 통증 및 출혈 조정도 가능해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존율도 증가시키는 것도 큰 장점이다.

2013년 7월 도입한 최신형 방사선 치료기 인피니티(Infinity™)는 빠른 치료 속도와 정밀도, 정확성을 자랑한다. 스웨덴 엘렉타(Elekta)에서 만든 인피니티는 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와 영상유도기술을 융합한 입체세기조절회전방사선치료(VMAT)시스템으로 치료뿐 아니라 방사선 수술까지 가능하다.

장아람 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인피니티 가동에 따라 기존의 선형가속기, 사이버나이프와 함께 2D, 3D 방사선치료는 물론,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체부 정위적 방사선치료(SBRT)와 영상 유도방사선치료(IGRT), 입체세기조절방사선치료(VMAT)까지 모든 첨단 방사선 치료를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부천
병원

토모 다이렉트, 유방암 · 부인암 치료에 탁월한 현존 최고의 '3차원 입체 치료장비'



순천향대 부천병원의 대표 의료장비인 '토모 테라피'가 새로운 옷을 입었다. 현격하게 업그레이드된 '토모 다이렉트'는 그 성능과 효과로 가히 현존하는 최고의 '3차원 입체치료장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워진 토모 장비의 특징은 정확한 세기와 밀도의 방사선을 정확한 위치에만 균일하게 조사해 질환 치료의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토모 다이렉트가 특히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질환은 유방암과 부인암(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등 여성 질환이다. 그 중에서도 유방암에 특히 효과적이다. 유방암의 경우 기존 방사선 치료에서는 방사선을 100% 조사하면 유방에서 가까운 폐, 심장, 간 등의 정상 조직까지 방사선에 피폭돼 부작용이 발병할 수 있어 95%까지만 조사해 왔다. 부족한 5% 방사선량이 유방암의 재발률을 높이는 위험을 남겼던 것이다. 반면 토모 다이렉트는 100%의 방사선이 정확하게 유방과 겨드랑이만을 조사한다. 단위 조각별로 세분화된 빔이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고르게 조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모 다이렉트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등 부인암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기존 부인암 방사선 치료에서의 문제점은 방사선 치료 후 대퇴골두무혈성괴사 등의 합병증이 발병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2차원 치료는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에서 대퇴골두를 향해 직접 조사되는 방사선 노출이 많았다. 하지만 토모 다이렉트의 경우에는 빔 각도를 대퇴골두를 피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여 치료하는 다중빔 3차원 치료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6개의 방향에서 대퇴골두에 세이빙(saving) 방사선을 조사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문성권 교수는 “미국 유명 유방암센터에서 시도하고 있는 토모 다이렉트 장비를 갖춤으로써 지역 유방암 방사선 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켰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특히 토모 다이렉트는 급여장비로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착한 장비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는 지난 2009년 토모테라피센터를 오픈, 꿈의 암 치료기라 불리는 토모테라피 치료를 시행해 왔다. 2014년 8월부터는 토모 다이렉트 유방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다 양질의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천안
병원

노발리스티엑스, 세계 최고 암치료기 보유 MRI, CT 등 진단장비도 최고 기종으로 교체

의료진의 실력만큼이나 장비의 성능도 병원 진료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다. 의료진의 정밀한 눈과 손이 되어주는 검사 및 치료 장비들의 성능이 질병 치료의 든든한 바탕이 되기 때문이

협력병원 진료 효율까지 업그레이드시켰다 천안병원 의뢰 검사 원스톱 서비스

천안병원에서는 500개소가 넘는 협력병원과의 협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일 검사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협력병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뢰 검사 원스톱서비스는 크게 아래와 같이 네 가지다.

MRI / CT 검사

천안병원의 최고 성능 MRI와 CT가 협력병원 진료 효율까지 업그레이드시켰다. 진료 예약 당일에 환자가 천안병원을 방문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 검사가 가능하다. 단, ▲ 조영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당일 금식이 필요하며, ▲ 당뇨약과 당뇨 주사는 검사 전날부터 금해야 한다.

근전도 검사

천안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진료 후 당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가능일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며, 검사 시작 시각은 오전 10시 30분이다.

내시경적 용종 절제술

천안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진료 후 당일 위장 및 대장의 용종 제거술을 시행하고 있다. ▲크기와 용종의 형태에 따라 ESD(내시경 점막하 박리술)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엔 당일 시술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의식하진정내시경 환자의 경우 당일 운전이 불가하니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 갑상선 세포침 검사

천안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진료 후 당일 갑상선 세포침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 가능일과 검사 시작 시각은 ▲월요일(오후 4시), ▲화요일(오후 3시 30분), ▲수요일(오후 4시). 단, 항혈소판제제는 1주일 정도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 그런 점에서 천안병원의 영상진단 및 치료 인프라는 단연 돋보인다. 장비들의 성능 레벨은 최고 수준이다.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특급 장비들의 도움에 힘입어 천안병원 환자들은 더 빨리, 더 행복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다.

천안병원 치료 장비 에이스는 단연 노발리스 티엑스(Novalis TX). 미국 FDA가 공인한 세계 최고의 방사선 암 치료기로, 2010년 국내 두 번째로 도입해 화제를 모았다. 노발리스 티엑스는 전신에서 발생한 모든 암을 치료하며 사이버나이프, 토모테라피, 래피드아크 등 모든 최신 방사선 치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꿈의 암 치료기이다.

방사선 조사 면적이 2.5mm로 매우 정밀하며 암 세포를 추적할 수 있는 GPS가 장착되어 있어 암 조직만 선택적으로 치료한다. 이러한 강점을 지닌 노발리스티엑스의 명성은 지역을 넘어 해외까지 널리 알려져 다양한 국적의 암 환자들이 천안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가동한 지 1년 만에 암 치료 건수 1만 건을 돌파할 정도로 크게 주목을 받았으며, 지금도 암 환자 치료의 선봉에 서 있다. 다음은 천안병원 진단 장비 수준을 살펴보자. 전신의 암 진단에 적합한 PET-CT, 암 치료기 노발리스 티엑스와 환상의 짝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Novalis TX, 128 slice PET-CT, 256 slice CT, 3.0T MRI

을 이루고 있다. 2012년 천안병원이 들여온 128슬라이스 PET-CT는 높은 슬라이스 수만큼 신속하고 정밀한 암 탐색이 가능하다. 2mm의 작은 암 병변까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

2014년 최신 기종으로 업그레이드한 MRI와 CT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천안병원의 자랑이다. 지난 6월 도입해 가동을 시작한 3.0 테슬라 MRI 2대, 3.0테슬라 중에서도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가장 뛰어난 해상도와 빠른 촬영시간을 자랑한다. 진단력은 최고조로 높아졌고, 환자들의 불편은 훨씬 감소되었다.

MRI에 이어 7월에는 CT들도 업그레이드 됐다. 천안병원 CT는 모두 3대. 그중 2대가 최고 성능인 256슬라이스이며, 1대는 바로 아래인 128슬라이스의 성능을 갖췄다. 모두 현존 최저 방사선량의 CT라서 방사선 피폭량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미국 FDA가 공인하는 방사선 피폭 안전성을 지녔다. 안전성만큼이나 성능도 세계 최고다. 최초로 0.23mm까지 표현해낼 수 있는 HD급 해상도를 갖췄다. 천안병원은 256슬라이스CT 1대는 응급의료센터에 배치해 심뇌혈관응급환자 치료 효율을 극대화시켰다.

심·뇌혈관 촬영기 2대의 성능도 최고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CT 기능을 하는 Xper CT가 탑재된 것. 혈관 중재시술 도중 응급상황이 생기면 검사를 위해 CT실로 환자를 옮길 필요가 없어졌다. 촬영 면적이 넓고 영상의 해상도가 높아진 것도 장점이다. 시술 시간이 단축됨은 물론 방사선 노출도 최소화 했다. 이 2대의 활약으로 천안병원은 심뇌혈관 진단과 치료 능력은 물론 혈액 투석 환자들의 혈관 접근로 인터벤션 시술 능력까지 강화되었다.

구미
병원

‘혈관조영촬영장치’ 2대 가동, 혈관중재시술 분야 선도

최고 화질, 빠른 촬영 속도 자랑하는 128채널 MDCT

구미병원이 최첨단 장비 도입으로 지역 의료계에 새바람을 몰고 있다.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장비 도입은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북 지역, 단 3대만 있는 장비인 PET-CT(독일 지멘스사 Biograph 16LSO HI-REZ 기종)가 구미병원에 있다. 3차 상급종합병원에만 있을 법한 장비지만 2011년 암 조기 진단을 목표로 과감히 도입했다. PET-CT는 진단과 함께 전이 여부와 항암제 치료 및 방사선 치료 후 어느 정도 치유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해 암 조기 발

견으로 완치율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구미병원은 타 의료기관 보다 앞서 혈관조영기를 이용한 시술을 시행해 왔다. 현재 ‘디지털 혈관조영촬영장치’(Digital Angiography System) 2대를 가동 중이다.

그중 심혈관조영기는 필립스사의 Allura Xper FD20 기종이다. 심장혈관 촬영, 말초혈관 촬영 및 풍선성형술, 스텐트 삽입술 등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방식의 평면패널을 이용한 최신 기종으로써 응급 심혈관질환자와 뇌혈관질환자를 동시에 진단하고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또 다른 혈관조영기는 소화기계, 비뇨기계, 혈액투석 동정맥루, 산부인과계 등 수술이 어려운 부위의 질환을 영상 중재치료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자궁근종색전술,



산후 출혈, 인공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풍선 성형술 등이 그것이다. 첨단 진료와 의료장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구미병원은 또 한 번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2014년 9월 대표적인 첨단 진단 장비로 손꼽히는 지멘스사의 128채널 MDCT (Multi-Digital CT)를 도입, 눈길을 끌고 있다.

0.33mm 크기의 종양까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CT 장비인 MDCT는 0.3초의 초고속 스캔으로 384장의 이미지를 재구성할 수 있다. 전신촬영이 10초 이내에 가능하다. 기존 CT로 불가능했던 움직이는 장기 촬영이 가능해 심장관상동맥 협착 등 심장질환 진단에도 탁월하다. 또한 기존의 CT 장비보다 피폭선량(방사선)이 최대 50~75% 이상 줄어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한 것도 특징이다.

이밖에 요로협착 및 요로결석 치료와 전립선비대증의 최신 치료 홀렙수술이 가능한 홀몸레이저, 목속 불산농도 측정이 가능한 불산검사기, 색소를 타겟으로 치료하는 루비레이저, 근육과 인대, 연골, 뼈 관련 신경이나 혈관을 검사하는 근골격계 초음파 등 첨단장비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나의 목숨은 곧 승객의 목숨입니다”

운 좋은 운전기사 임규덕씨, 치사율 높은 복부대동맥류 완치



12월 25일에만 방문하는 산타클로스는 잊어라. 1년 365일 내내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선사하는 ‘구미 산타클로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이 더욱 반가울 따름이다. 순천향으로부터 선물받은 두 번째 삶을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임규덕 씨의 ‘순천향 예찬’을 들어본다.

글_하상원

순천향에서 선물 받은 새로운 삶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부대동맥류’라는 시한폭탄을 뱃속에 품고 다녔던 임규덕 씨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이하 구미병원)에서 지난 6월, 그 폭탄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일단 혈관이 터지면 거의 100%에 이르는 치사율을 기록할 정도로 큰 위험성을 가진 복부대동맥류를 완치한 것이다.

임 씨가 복통으로 구미병원을 찾은 것은 지난 5월 말이었다. 5년 전 발생한 심방세동의 추적관찰을 담당하던 안지훈 구미

병원 심장내과 교수를 찾아왔던 것이다. 임 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확인한 안 교수는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실시했는데, 정상적인 복부대동맥류의 평균 폭 2~3cm보다 무려 3배 이상 확장된 6cm의 복부대동맥류를 진단하게 됐다.

“복부대동맥의 경우 5.5cm 정도로 확장되면 파열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하더군요. 제가 매우 운이 좋았던 거죠. 아직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제게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안 교수님과 구미병원이 제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 준 것이죠.”

안 교수가 임 씨의 복부대동맥류의 치료를 위해 선택한 방법은 수술적 방법이 아닌 혈관조영술을 통한 대동맥 내 경피적 스텐트 삽입술이었다. 해당 시술은 복부를 30cm 이상 절개해야 하는 수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안전성과 생존율을 보장한다. 스텐트 삽입술은 일종의 ‘인공혈관’인 스텐트를 혈관 팽창 부위에 안착시키는 시술로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으며 환자 상태에 따른 시술 적응증을 확인하고 실제 시술 시 스텐트 삽입과정을 조율할 수 있는 ‘혈관조영기’가 필수적이다.

임씨의 경우 모든 조건이 맞물리며 빠른 완치가 가능한 스텐트 삽입술을 시술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구미병원 심장내과의 풍부한 임상 실적 역시 복부대동맥류 완치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구미병원 심장내과의 지난 5년간 시술 및 치료 건수는 무려 1,464건에 달한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PCI(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1,281건 ▲PTA (경피적 혈관 내 성형술) 168건 ▲ASD (심방중격 결손 폐쇄술) 11건 ▲PMV (경피적 승모판 성형술) 4건으로 나뉜다.

안 교수는 “구미병원은 지역에서 최초로 혈관조영기를 갖춘 까닭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술 건수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풍부한 경험이야말로 완치를 위한 최고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시설과 실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는야 ‘순천향 마니아’

운전기사로 일하는 임 씨는 평소 철저하게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자칫 사고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의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아들·딸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저 하나만의 문제였다면 이렇게 병원을 꾸준히 다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잡는 운전대를 믿고 버스에 오른 많은 승객

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구미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습관이 복부대동맥류라는 제 뱃속의 시한폭탄을 없애준 것이죠.”

임 씨는 스스로를 ‘순천향 마니아’라고 부르곤 한다. 자신의 지병으로서 오랫동안 추적관찰 중인 심방세동과 최근 완치된 복부대동맥류는 물론 다양한 부상과 질병 치료를 위해 구미병원을 자주 방문한 것이다.

“사실 저보다 제 아들이 먼저 뇌경색으로 구미병원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안지훈 교수님을 만났는데 참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 제가 알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때문에 제가 아파서 병원을 방문했을 때도 안 교수님께서 꼭 집어서 진료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자에게는 그야말로 은인이시죠.”



임 씨는 안 교수를 비롯한 구미병원 전문의를 가리켜 ‘선생님’이라고 표현한다. 환자가 자신의 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단어를 사용하거나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증상과 치료 방법을 설명하는 등 환자를 위한 최선의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임 씨의 이 같은 말에 그저 담담하게 “의사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답변한다. 오히려 의사의 일방적인 설명이나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환자를 대하는 것은 ‘근무 태만’이나 마찬가지라는 소신을 밝혔다.

영남 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한 구미병원은 최신 의료기기 도입,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의료진 구성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있다. 환자들의 가족과 행복을 지켜준 구미병원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최고의 ‘산타클로스’인 셈이다. 

실명원인 '황반변성' 치유캠페인

썬프라워 캠페인...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주관,
황반변성 예방과 조기 진단 필요성 강조



정리_ 편집부

8월 9일 오후 4시, 복잡한 세종로 일대에 노란색 물결이 일었다. 노란색 티셔츠에 노란색 해바라기 모양의 선글라스를 쓴 행렬이 노란색 해바라기 모양의 피켓과 국민 눈 건강 지킴이 실명예방재단 피켓을 들고 나타났다. “눈 건강을 지킴시다. 황반변성, 조기 검진으로 실명을 예방합시다”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나들이를 나온 시민, 각종 집회에 참여한 시민과 안내하는 경찰, 외국인 관광객 등 수많은 이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을 보였다. 시청을 출발해 광화문 시민공원까지 이색적인 행진을 연출하는 동안 이들에게 황반변성을 예방하고 치료를 지원하자는 캠페인의 의미를 전달해주었다. 행진을 마친 후에는 ‘조기 검진과 예방으로 눈 건강을 지키자’, ‘노인 실명 원인 1위 황반변성을 극복하자’라는 희망의 구호를 외치며 기념 촬영으로 행사를 마감했다. 이 행사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안과에서 주관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과 누네안과에서 후원했다. 황반변성의 예방과 조기 진단 확대, 치료 지원 기금 모금을 위한 ‘썬프라워 캠페인’의 시작을 선포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시가 행진에 앞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콘서트에는

800여 명의 황반변성 환자와 일반 시민,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과 한국실명예방재단 관계자, 안과 전문의 등이 참석해 힐링 음악회, 토크쇼, 홍보영상 상영, 질의응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즐겼다. 먼저 힐링음악회는 신효범, 이동우, 장원기 등 초대 가수의 열창, 대니 정 색소폰 컨템퍼러리 재즈아티스트, 정경 오페라마, 루이스 최 카운터테너,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연합합창단 공연, 박정자 연극배우의 시 낭송, 백진주 교수의 바이올린과 피아노 협연 등으로 환우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는 홍보영상은 이성진 순천향대서울병원 안과 교수의 경험담을 담았다. 그동안 남다른 사명감으로 황반변성 환자들을 진료해 왔지만 그에게 진료를 받았던 한 중년 여성은 실명의 두려움과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는 부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환자가 있었기에 그 사례를 소개했다. 순천향대학교병원의 이성진 교수는 “황반변성으로 생을 포기했던 환자에게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황반변성은 실명의 위험이 높지만 꾸준히 치료를



병행하면서 시력을 유지하다 보면 더 좋은 치료법이 나올 것이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진 교수와 권오웅 교수, 황반변성을 앓고 있는 환자, 가수 신효범 씨가 참여한 토크쇼는 황반변성은 어떤 병이고,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최신 치료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꾸며졌다.

누네안과병원의 권오웅 교수는 황반변성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실명 원인 1위이고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실명 원인 1위가 황반변성이다. 50세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60세에서 점점 증가하는 병으로 반드시 퇴치하고 극복해야 하는 병인데 그 위험성은 물론,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안타깝다”며 썬플라워 캠페인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진 교수는 “황반변성 환자의 48%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86%의 환자가 TV 시청이나 독서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또 75%의 환자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우울한데,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30명이 1만 원을 기부하면 한 사람의 실명을 예방할 수 있다”며

“썬 플라워 운동에 동참하고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행사는 환우회, 의료인, 예술인, 기업인 등이 협력하여 만든 해바라기 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순천향대학교 병원이 주관했다. 한국실명예방재단, 누네안과병원, 마산 정안과, 한국관광공사, 국제약품, 근화제약, 태준제약이 참여하였고, 바이올리니스트 백진주 교수와 피당 김한겸 대표가 콘서트의 진행을 도와주었다.

향후 실명 예방을 위한 기부를 원할 경우, 목향재단 070-7593-2400으로 연락하면 된다.

황반변성은 눈 속에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의 중심점, ‘황반’이 노화로 손상되는 질환으로 보려는 사물이 보이지 않게 된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실명 원인 1위로 손꼽힌다. 주로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직선이 휘어져 보이고 중심이 잘 보이지 않는 등의 증상이 있다. 황반변성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조기에 진단하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 외 선글라스로 자외선 차단하기, 항산화제와 미네랄이 풍부한 신선 과일·채소 섭취하기, 금연하기, 꾸준한 운동하기 등의 생활습관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 맞춤형 ‘다학제 통합진료’시작

부천병원 다학제 진료실 오픈, 최고 전문의 5인 이상이 동시에 참여해 최상의 치료 성과 도모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8월부터 다학제 통합진료실을 오픈하고, 다학제 통합진료를 시작했다. 다학제 통합진료란 한 명의 환자를 위해 여러 진료과 전문의들이 협력해 진단부터 치료 방법 결정까지 논의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매우 이로운 진료시스템이다. 우선 다학제 통합진료를 가장 먼저 적용한 질환은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 각종 '암' 질환이다. 전문의 5인 이상이 동시에 진료에 참여해 최상의 치료 성과를 도모하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다학제 통합진료 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

정리_ 편집부

수술과 수술 후 관리 동시에 잘 하려면 다학제 진료가 '필수'

유방암은 갑상샘암 다음으로 국내 여성에게 많이 생기는 암이다. 재발이 잘 되는 암으로, 꾸준한 관리와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학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현재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등 5개 진료과가 다학제 진료를 시행해 최고의 수술 성과를 내고 있다.

우선, 환자가 암을 때 내는 수술과 유방 복원 수술을 함께 받고자 할 때 '다학제 진료'의 효과는 극대화된다. 최근에는 많은 여성들이 암 제거술과 유방 복원 수술을 함께하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암을 떼어내는 수술과 복원 수술은 수술 전 계획이 수술 중 바뀔 수 있어 협진하지 않을 경우 동시에 하기 어렵다. 또한 유방암은 수술 후 재활과 관리가 중요해 다학제 진료가 더욱 중요하다. 수술할 때 입원 기간은 6~7일 정도지만 방사선 치료는 5~7주, 항암 치료는 4~6개월, 표적 항암제 치료는 1년, 호르몬 치료는 5년간 해야 한다. 림프 부종 치료 등을 위해서는 재활의학과 협진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장기간 통합관리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빠른 확진 필요한 폐암...6개 진료과 협진해 5일 만에 확진

갑상샘암, 전립샘암 등은 평균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다. 반면 폐암은 15%에 불과하다. 또한 폐암 1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생존율이 85%에 달하지만, 4기에 발견하면 5%도 안 된다. 폐암의 조기 진단이 중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폐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다른 암과는 달리 수술 이외의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

부천병원은 호흡기알레르기내과·흉부외과·영상의학과·병리과·종양혈액내과·방사선종양학과 등 총 6개 진료과에서 동시다발적 협진으로 폐암 확진 시기를 앞당겨 5일 만에 확진한다.

7년 이상 팀을 이뤄 진료하는 '팀 접근법(Team Approach)'은 5년 전부터는 단 5일 만에 폐암을 확진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이로 인한 장점은 다양하다. 일단 발 빠른 폐암 확진으로 치료 효과를 높인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의 초기 폐암 5년 생존율은 85%로 전국 평균 49.5%보다 훨씬 높다. 수술은 암 조직만 정교하게 제거하는 흉강경으로 시행한다. 통합적 폐암 치료 관리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위암, 대장암, 간암, 식도암 등 각종 암 질환과 관련하여 최소 5개 진료과 의료진이 모여 협진을 시행하고 환자 한 명 한 명을 위한 최선의 치료 방향을 결정, 최고의 치료 성과를 도모하고 있다. 



폐암 통합진료 5일 확진 FLOW

- 1일 : 영상의학과 검사(흉부 X-ray, 흉부 CT)
- 2일 :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폐생검 혹은 경피적인 폐생검
- 3일 : 조직 검사 결과 확인 및 다학제 회의
- 4일 : 폐암의 병기 결정을 위한 검사(PET-CT, 뇌 MRI, 골주사)
- 5일 : 전체 회의(병기와 치료 방향 결정)



‘어쿤’ 순천향!

캄보디아에 올려퍼진 ‘순천향인간사랑’...메디컬트레이닝센터 오픈

“쑤어쓰다이, 어쿤. 저는 한국에서 온 순천향대학교 총장 서교일입니다. 순천향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함께 만든 한국-캄보디아 메디컬트레이닝센터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4년 8월 15일 앙코르 와트로 유명한 캄보디아 시엠립주립병원 모자보건센터 앞마당에서는 보기 드문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그 현장을 가본다.

(*어쿤 : 캄보디아어로 감사합니다)

정리_ 편집부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김성구 의료원장)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이종욱 펠로우십’ 사업과 ‘바탐방 조산사양성사업’을 연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년 동안 준비한 메디컬트레이닝센터를 오픈하는 기념식이 열린 것이다.

센터는 지상 2층 건물에 연면적 1,800㎡ 규모로 실습교육실과 시청각교육실, 사무실, 드림홀(전시실)을 갖췄다. 실습교육실에는 강의와 실습이 가능하도록 프레젠테이션 시스템과 실습 장비를 갖췄고 인체 해부도, 각종 인체 모형, 의료기기도 비치했다.

운영은 시엠립 보건국과 시엠립 주립병원, 순천향대학교중양의료원이 협력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교육 프로그램을 지도할 교수진은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따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1년 이상 연수한 캄보디아 엘리트 의사와 간호사들이 맡는다.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과 수시 방문 교육을 통

해 시스템 정착과 센터 프로그램의 발전을 도울 예정이다.
오픈 기념식에는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사업을 총괄 진행하고 있는 유병욱 순천향대학교 국제교류처장 겸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캄보디아 의사들을 직접 지도한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조소재 간호사, 김용현 실무담당관, 홍진영 자원 봉사자, 석미자 캄보디아 빌드브라이트대학교 한국어과 교수 등이 참석해 뜻 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 캄보디아 시엠립 주에서는 코룟사랏 주 보건국장, 시엠립 주립병원장과 임직원,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연수한 캄보디아 의사와 간호사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센터 오픈을 축하하고 지원을 해 준 한국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순천향대학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서교일 총장, 지속적인 선진의료 기술 지원으로 캄보디아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

서교일 총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을 찾지 않더라도 선진의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센터와 시스템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캄보디아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룟사랏 시엠립 주 보건국장은 “의료제도와 기술이 열악한 캄보디아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준 대한민국 정부와 순천향대학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서교일 총



장님과 유병욱 교수 등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오픈식을 가진 다음날에는 한-캄 메디컬트레이닝센터에서 ‘2014 제2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순천향중앙의료원 이종욱 펠로우십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시엠립 주립병원 의료진 중에서 1년 이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연수한 순천향 동문 의료진과 연수를 앞둔 간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 연구한 내용과 환자 사례, 병원정보시스템 등에 대해 발표하고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에서 캄보디아 의사들을 직접 지도한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궁근종 절제 수술 동영상과 함께 산부

인과 질환에 대한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종욱 펠로우십 총괄 책임자인 유병욱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는 캄보디아 의료진들이 발표할 때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예로 들면서 알기 쉽게 설명해 현지 의료진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시엠립주립병원 행사 일정에 앞서 8월 11일부터는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서는 순천향이 주관하거나 관련한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우선 순천향중앙의료원 산하 한캄봉사회(신원한 회장)는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프놈펜에 있는 뿌레아 꼬사막 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펼쳤다. 캄보디아 의료봉사단은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신원한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교수, 황선철 교수, 박은수 성형외과 교수, 신응진 외과 교수, 허성모 외과 교수, 이종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외과 교수, 공형윤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이세진 순천향대 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전공의, 수술실 간호사, 약사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일반 외래 진료가 아닌 수술이 시급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치료 중심의 의료 봉사를 실시했다. 수술비 등으로 걱정이 많았던 40여 명의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선물을 준 것이다.
또한 14일 오전 10시에는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과 뿌레아 꼬사막병원, 러시아 친선병원, 그리고 개인병원인 소크랫폴리 클리닉이 급만성질환을 원격 협진하는 시스템 오픈식을 가졌다.

순천향대학교와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지난해부터 뿌레아 꼬사막병원 등 3개 병원과 협진시스템을 구축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진과 연수자들을 연계해 원격협진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영상데이터의 원격판독과 협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도 가능해졌다. 8월 15일 오전에는 프놈펜 의과대학에서 제8회 재(在)캄보디아 순천향동문세미나를 개최해 그동안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연수를 실시한 캄보디아 의사들과 함께 캄보디아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학술세미나도 진행했다.

2004년부터 캄보디아 의사 연수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47명을 배출했다. 이종욱펠로우십 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순천향대병원에서 연수한 의사들이 별도의 동문회를 발족해 매년 동문회 행사를 갖고 있다. 또한 의학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의학기술과 정보의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순천향중앙의료원은 KOFIH와 함께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직접 강의를 진행한 경험이 없는 의료진들에게 교수적 역량을 높여 주고, 캄보디아의 의료와 보건정책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순천향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는 우리나라 의학계의 커다란 별이었습니다. 하늘의 순리에 따라 인간을 치료하고 고향의 눈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본 서 박사는 이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의료인의 표상이었습니다. 본지는 그동안 서 박사의 일대기에 이어 2014년 새해를 맞아 그가 남긴 업적에 대해 후학들과 지인, 서 박사를 평소 존경했던 사람들이 들려주는 가슴 따뜻한 감동적인 얘기를 연재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이에게 감동과 교훈이 될 것입니다.

거목을 스쳐가는 바람이야기

“제자와 환자들의 등대가 되셨던 향설 박사님의 고향은 바로 우리 마음속”

글_ 이길노 (前 구미병원 병원장)

양상한 나뭇가지를 스쳐가는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바람은 아무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바람은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박사님의 기억들은 언제나 조금 전에 일어난 일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눈이 오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그 하얀 눈을 뒤집어 쓴 고향의 느티나무가 기억 속에 아련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서 거목에 머물다 스쳐간 바람들은 그때 그 느티나무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리워할 것입니다.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수많은 세월을 동구 밖에 우뚝 선 느티나무는 몸으로 받아들이고 사랑과 경외(敬畏)의 대상으로 지금도 마을을 굽어보며 수호신으로 새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다만 스쳐간 바람에 불과한 우리가 임의 곁을 떠난 것이지 임은 그 자리에서 천 년을 두고 머물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느 날 의료계의 거목이신 박사님의 부름을 받고 한 줄기의 바람처럼 불원천리(不遠千里)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거목의 끝자락 작은 가지에 매달려 심장의 모습을 닮은 작은 과일 하나를 맺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거목이 주는 생명의 수액(樹液)에 바람이 가진 열정을 섞어서 임이 그려주신 과일을 맺기 위해 열심히 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열매의 모양이 생기고 그 열매는 충실하게 익어갑니다. 그리고 거목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던 바람은 임의 곁을 떠나온 후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모든 공은 다 바람에게 주면서 힘든 뒷바라지를 하였던 임의 깊은 뜻을 말입니다.

지금도 바람은 거목의 주위를 맴돌면서 임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박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과 추억을 다 더듬을 수는 있지만 외람되게도 한 구절의 평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제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러하겠지만 분에 넘치는 사랑과 관심을 받았기에 더욱 마음이 무겁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비록 임은 가셨지만 홀연히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시며 한동안 따뜻하게 지내면서 한 줄기 바람으로 머물렀던 우리이기에 얇은 입술로 더더욱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를 다스리고 국가 요직에 계신 분들과 밤 회동자리가 있을 때 농담이 오가고 환

담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나눌 때는 슬쩍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몰래 몇 모금 담배 연기를 마시며 우리들은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니가 내 마음을 우째 알겠노?”

늦은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입을 댕으로 모셔다 드릴 때 자주하던 말씀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감히 어른 속내를 짐작만 할 뿐 그저 담담한 심정으로 침묵만을 지켰습니다.

한때 우리는 동물실험실이 없어서 밤마다 외래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죄지

은 심정으로 호출을 당해 박사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박사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듄직한 모습으로 동물 조달을 위해 격려의 봉투를 하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감격과 분발 이외에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긴다면 외람되고 진다면 난감한 말씨름에 내키지 않는 심정으로 엉겨주춤하고 있는 사이 “젊은 놈이 우에 그래 박력이 없노?” 하시며 벼락같은 꾸중을 하실 때 참으로 진땀이 나고 난감했습니다.

〈“I was dancing with my darling to the Tennessee waltz”〉를 즐겨 부르시던 Tennessee waltz는 아직도 여운과 함께 우리의 귓전을 맴돕니다. 박사님의 마음의 고향은 어딜까요? 고향의 눈처럼 포근하게 온 누리를 감싸며 병든 자들의 등대가 되셨던 박사님의 고향은 바로 우리 마음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원 기념 다과회에서 직원들과
담소하고 있는 서석조 박사

우물가에는 채송화, 다알리아, 연산홍이 앞 다투어 피고
새끼 병아리를 거느린 씨암탉이 마당을 여유롭게 노니는 고향의 봄
밤이면 초가지붕에 하얀 박꽃이 달빛과 어우러지고
모깃불 풀 향기가 뒷마루를 맴도는 고향의 여름
초가집 토담에는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한 호박들이 누렇게 익어가며
그 밤 풀벌레 소리만 깊어가는 고향의 가을
마을 뒷산에는 하얀 첫눈이 온 누리를 덮으면서
가지마다 매달린 감들이 속속들이 익어가는 고향의 겨울

정겨운 사계의 고향이 포근히 숨 쉬고 사는 그곳 동구 앞에는 수많은 세월을 지켜온 한 그루의 거목이 있어서 지나가는 바람에게 하늘天的 순리(順理)를 일깨워줍니다. “치료는 하늘이 하고 너희는 다만 도와줄 따름이니라” 바람은 지금도 거목의 주위를 맴돌며 임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노래하는 천사’

이령경 구미병원 약제팀 사원,
노래하는 삶의 도전이 즐겁다

때로는 백 마디 말보다 한 곡의 노래가 많은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기도 한다. 언어와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노래의 힘’이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유해주는 ‘노래하는 천사’, 이령경 약제팀 사원의 구성진 노랫가락에 빠져본다.

글_ 하상원 사진_ 심지연

그녀의 기분 좋은 ‘이중 생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이하 구미병원) 약제팀의 ‘안방마님’으로 불리는 이령경 사원은 원내 최고의 ‘팔방미인’으로 유명하다. 빈틈없는 일처리로 약제팀의 세세한 살림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은 물론 3교대로 돌아가는 바쁜 일정을 쪼개 어린 시절 꿈이었던 ‘성악’을 공부해 이제는 공연까지 할 정도로 실력이 일취월장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성악가가 되고 싶어 음대로 진학하려 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미웠다고 여기며 언젠간 성악에 도전하려고 스스로 다짐하곤 했지요. 다행히 좋은 스승님을 만나 오래전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었음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원이 성악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것은 7년 전부터다. 다소 늦은 나이였지만 성악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치열한 노력이 맞물려 어느새 수준급 실력을 뽐내게 됐다. 또한 지난 2008년 작은 소강당에서 열린 발표회부터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연과 작년 구미병원에서 열린 ‘순천향, 힐링을 부탁해!’의 자선 공연까지 무대에서 꾸준하게 노래를 불러왔다. 특히 지난해 환자들을 위한 자선 공연에서 가장 큰 박수갈채를 받은 주인공이 바로 이 사원이었

다고 한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환자들에게 좋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저의 작은 재주가 답답한 병원 생활에 지친 환자들에게 잠시라도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해 올 연말에는 작년보다 나은 노래를 환자들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이 사원은 올해 계획된 많은 공연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아마추어 콩쿠르’에 출전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바쁜 와중에도 1주일에 1번은 꼭 레슨을 받고 있으며 중요한 공연이나 콩쿠르가 다가오면 별도의 개별 연습을 병행하고 있다.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이 끝나거나 주말에 출근해야 할 때도 있지만 성악을 향한 그녀의 열정을 사그라뜨리지는 못했다.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하고파

성악(聲樂, Vocal Music)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 목소리에 의한 음악의 총칭’이다. 악기나 기타 기구가 아닌 타고난 목소리, 그 하나가 성악에 필요한 전부인 것이다. 때문에 성악가들은



그들의 유일한 악기인 ‘목’을 보호하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곤 한다. 행여 감기라도 걸린다면 마치 바이올린 현이 끊어진 것과 같이 음악을 연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로 성악가는 아니지만 저 역시 평소에도 목 관리에 많은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성악은 꾸준히 연습하는 것만이 실력 향상의 유일한 비결인데 목이 아프면 그 기회조차 잡을 수 없기 마련입니다. 취미라고는 하지만 오랫동안 소원해왔던 제 어린 시절 꿈에 대한 ‘오리’를 저버릴 수는 없겠죠(웃음)?”

성악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성악 연습을 한 시간 정도 하고 나면 온 몸이 땀으로 흥건해진다고 한다. 목이 아닌 몸을 사용해 소리를 내는 성악은 노래를 하는

자체만으로도 온 몸에 힘이 들어간다. 초심자가 제대로 성악 연습을 하고 나면 다음 날 근육통에 시달릴 만큼 매우 격렬하다고 한다. 7년 동안 꾸준히 성악 연습을 해왔던 이 사원은 어떨까.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아직도 연습을 하고 나면 땀으로 옷이 젖을 정도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노래만 부르는 건데 뭐가 그리 힘들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노래 연습실에서 놀이 삼아 한·두 시간 노래를 부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힘들수록 제대로 성악을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성악의 매력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원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한국 가곡’이다. 마치 시와 같은 절절한 노래 가사가 마디마디 가슴에 날아와 박히기 때문이란다.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에 흥이 났던 듯, 그녀는 즉석에서 멋들어진 공연을 펼쳐보였다. 맑고 풍성한 그녀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우자 병원 로비는 어느새 작은 공연장으로 변해있었다. 노래가 갖는 힘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아름다운 노래로 구미병원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유하겠다는 ‘노래하는 천사’ 이영경 사원의 유쾌한 도전이 그저 반가울 뿐이다. 

사람과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곳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심혈관센터'...가족과 같은 신뢰와 정으로 끈끈한 유대감 자랑

20년 가까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모든 교수들과 직원들이 부러워하는 곳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그 어느 곳보다도 치열한 나날을 보내는 곳이다. 이 치열함 속에서도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이유는 바로 그들만의 가족과도 견줄만한 끈끈한 사랑과 정이었다. 바로 사람과 생명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곳, 바로 심혈관센터다.

글_ 전진용 사진_ 안성욱



지난 1999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만들어진 심장센터가 ‘심혈관센터’의 모체다.

심혈관 센터는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타 병원의 경우 심장내과와 흉부 외과가 함께 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상호 간의 불협화음이나 의견 차이 등으로 협업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곳 서울병원의 심혈관센터는 병원 내에서 가장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한다. 심혈관센터 자랑을 묻는 질문에 열이면 열, 가족과 같은 신뢰와 정을 말한다.

심혈관센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현민수 심혈관센터장(심장내과 교수)은 “의사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과 가장 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같이 호흡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가족같지만 가장 치열한 곳

심혈관센터는 가장 가족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이지만 또한 가장 치열한 곳이다. 우리나라 성인 사망 원인 중 심혈관 질환이 압도적으로 두 번째로 꼽힌다. 그만큼 춘각을 다투는 위급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사실 그래서 이곳의 담당의와 직원들은 항상 군대의 ‘5분 대기조’를 연상케 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업무 시간이지만 퇴근 후에도 항상 만일의 사태를 준비해야 한다. 심근경색증 응급 환자의 경우 초를 다투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심혈관센터의 모든 담당의와 직원들은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거의 대부분의 담당의와 직원들이 병원 내 10~20분 거리에 살고 있을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 자주 연출된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의사들과 직원들은 가족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발적으로 병원 근처에 거주할 정도로 심혈관 센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심혈관센터의 현주희 간호사는 “친구와 마음 편히 술 한잔 마실 수 없지만 항상 센터 내의 가족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대한 자긍심이 크다”며 “친구 여러 명이 함께 만날 때는 괜찮지만 둘이 만나다가 급하게 병원으로 가야 할 때는 솔직히 많이 미안하고 난감하다”며 웃었다.



최신형 심혈관 조영장비를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생명 살리기 위한 최상의 협업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164건, 급성심근경색증을 앓고 있는 환자 수 즉 유병률은 10만 명당 677명으로 보고된 바 있다.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100명당 15명은 발생 1시간 이내에 혹은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고 이후 30일까지 사망은 이를 포함해 30명에 달한다. 최근 의학 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은 과거 20년 동안 30% 정도 감소한 상태지만 여전히 초기 대응에 따른 중요성은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실정이다.

심근경색증과 같이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의 수술과 시술을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심혈관센터다. 특히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협진과 협업은 순천향대학병원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현민수 심혈관센터장은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의료진이 서로에 대해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현민수 센터장이 시술을 마친 후 회진하고 있다.



박병원 교수가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다.

믿음으로 최상의 수술과 시술을 협업을 통해 이뤄내고 있다”며 “이는 다른 병원에서는 볼 수 없는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은 응급환자의 생존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심혈관센터는 올해 4월 리모델링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효율성을 높인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환자 진료와 치료, 그리고 수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진료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을 완벽한 동선으로 구축해 위급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리모델링에는 교수뿐 아니라 간호사와 기사 등의 의견까지 반영해 보다 완벽함을 추구했다.

현재 심혈관센터에는 심장내과에 현민수 교수(심혈관센터장), 김성구 교수(순천향중앙의료원장), 방덕원 교수, 박병원 교수, 이민호 교수와 흉부외과에 염옥 교수, 장원호 교수, 한정욱 교수가 완벽한 하모니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Mini Interview

현민수 교수(심장내과, 심혈관센터장)

“환자 위한 최적화된 콜라보레이션 구축”



“심장, 혈관질환에 있어서는 진료 및 치료에 대한 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한 교수들 간의 완벽한 콜라보레이션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민수 교수는 무엇보다 환자를 우선한 의료 활동을 강조했다. 특히 존각을 다투는 심혈관 질환의 경우 각 분야별 전문의들 간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따라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심혈관센터만의 콜라보레이션이 최적화되는 데 가장 큰 힘을 쏟고 있다.

“협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들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생활이 즐겁고 또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병원이 마치 집과 같이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일 수 있도록 항상 가족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 교수는 “최신 의료장비와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향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시설과 장비를 통해 보다 완벽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병원 교수(심장내과)

“환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최우선”



“항상 환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가 훌륭한 협업을 보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환자에 대한 생각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박병원 교수는 교수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직원 간의 가족적인 분위기가 심혈관센터의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서로 소통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으면 이겨낼 수 있거든요. 저희 센터는 교수들뿐 아니라 전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함께 많은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올해 새로 리모델링 된 시설에 대한 만족감도 드러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 효율성이 극대화됐으며 환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단순한 시설 보완이 아닌, 최적화된 진료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앞으로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보다 새로운 시술도 연구,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08:00

심혈관센터의 핵심이기도 한 심혈관조영 조정실이 환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전문의,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이 곳의 모든 의료 장비들은 항상 5분 대기 상태다.

10:15

심장내과 방덕원 교수가 환자의 심혈관 검사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최신 설비를 통해 환자의 심장 내부의 미세혈관들까지 완벽하게 확인해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13:20

심장내과 이민호 교수가 심전도, 운동부하심전도, 24시간 활동심전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

13:30

박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환자의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심장 초음파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심장의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심장의 해부학적 구조의 이상, 심장 기능, 심장 내 압력 등을 실시간으로, 비침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검사법이다.

14:40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 대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이 진행 중이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이나 이에 상응하는 질환 발생 시 응급 혹은 응급에 준한 관상동맥 조영검사를 시행하고 심근허혈의 원인이 되는 병변에 대해 시행하게 된다.

16:00

김성구 교수와 교수진들이 오후 회진을 돌고 있다. 환자들의 상태와 치료 및 수술 경과 등에 대해 가족과 같은 친근한 말투로 상세히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16:30

오후 회진의 마지막 환자에게 현민수 심혈관센터장이 시술 결과를 친절히 설명하고 있다. 시술 후 팔과 어깨가 아프다던 환자는 곧 호전될 것이라는 현 교수의 친절할 설명을 듣고 이내 표정이 밝아졌다. 

현주희 간호사

“가족같은 분위기는 나를 지탱하는 힘”



“위급한 환자들을 대하는 곳이기엔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가족과 같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어 힘든 것도 잊을 수 있어요”

현주희 간호사는 2년째 이곳 심혈관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살면서 항상 급한 환자가 생기면 달려온다.

“친구를 만날 때도 항상 위급한 상황이 생길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기

에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보람이 커요. 특히 가족처럼 대해주는 교수님들과 동료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현 간호사는 조금은 힘든 일이지만 이곳 생활을 통해 위급한 환자들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보람된 일을 하고 있기에 더 큰 도움이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심혈관 관련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해야겠어요”

최혜정 임상병리사

“수평적 관계 속에서 업무 효율성 극대화”



“저희 센터는 다른 곳과 달리 상하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덕분에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협업을 통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최혜정 임상병리사는 경력 18년차의 베테랑이다. 여러 병동에서 일을 해왔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심혈관센터만큼 인원수에 구애를 받지 않는 곳은 없었다.

“다소 적은 인원일 수 있지만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서로 알아서 일을 나눠가며 하고 있어요. 굳이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서로 힘을 나누는 거죠. 바로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신뢰와 믿음 같아요”

최 임상병리사는 “심혈관센터에서 일하면서 많은 위급한 환자들이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일에 대해 안주하지 않고 술선수법해서 더욱 훌륭한 후배들을 양성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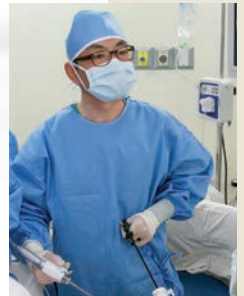


‘모든 환자분들에게 사랑을 담고,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이문수 병원장. 겸손이 몸에 밴 그는 위암 수술 명의다. 이름에 ‘최초, 최고, 최다’의 수식어가 술하게 따라 붙기도 한다. ‘위암 수술의 명의 이문수’는 신뢰를 뜻하는 순천향대병원의 브랜드다.

글 · 사진_편집부

“사랑 담은 맞춤치료가 위암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비결”

이문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장, 세계가 인정한 위암 수술 명의



그가 운영하는 위암 치료 전문센터는 국내 최고 권위와 실력을 자랑한다. 서울의 대형병원을 마다하고 전국 각지의 위암 환자들이 ‘천안의 이문수’를 찾는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한국 위암 수술의 태두라 할 수 있는 모 교수며, 내과 의사 가족들이 위암에 걸렸을 때 주저 없이 그에게 치료를 맡길 정도다.

이미 10년 전 전국의 위암 전문 의사들이 지목한 ‘위암 수술 한국 최고 의사’, ‘지방의 5대 위암 수술 전문의’ 등으로 중앙 언론에도 여러 차례 소개되기도 했던 이 원장의 명성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그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오롯이 위암 치료에만 매진해온 30년 외과 의사로서의 삶, 남다른 사명으로 외길을 내달려온 삶이 응축된 당연한 산물이다.

이 원장이 한 해 집도하는 위암 수술은 평균 200여건. 지금까지 그가 집도한 위암 수술 건수는 5,000여건에 달한다. 전국 암 환자의 대부분을 흡인하는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 1인당 연간 수술 건수로는 국내 최다 기록이다. 이 원장의 위암 수술 집도 건수는 2010년 병원 경영 일선에 나선 후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부속병원 관리원장을 맡고 있는 최고 경영자다. 뿐만 아니다. 바깥으로는 대한위암연구회 회장을 비롯해 대한위암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의학회 등 여러 학회의 중책도 맡고 있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럼에도 매년 200건의 위암 수술을 거뜬히 소화해내는 그를 보고 동료 의사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수술, 진료, 경영, 연구, 강의...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일인 다역을 훌륭히 소화해내기까지 얼마나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었을까 싶다.

위암 환자들은 누구나 수술 후 빠른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 환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 이 원장이 늘 하고 있는 고민의 주제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 고민의 결과는 다양한 ‘이문수표 위암 수술 술식 개발’로 이어졌다. 그가 창안한 수술 방법들은 발표될 때마다 학계로부터 ‘가장 이상적인 수술 방법’으로 평가받으며, 지금도 전 세계 수술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복강경 위암 수술도 ‘이문수표 맞춤형치료’의 결과 중 하나다. 이 원장은 복강경 위암 수술이 처음 등장하던 1996년부터 환자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오랜 경험이 뒷받침된 그의 복강경 위암 수술 실력은 탁월하다. 현재 이 원장은 조기 위암 환자는 거의 대부분 복강경 위암 수술로 치료하고, 다양한 병기의 환자들에게도 그만의 특장점인 맞춤형 치료를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원장이 탐과 열정으로 이뤄낸 치료 방법들은 그가 바라는 대로

환자들에게 빠른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선물한다. 위암 환자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생명을 붙잡아 주는 사명감이 남다른 이 원장과 그의 위암센터는 중부권 지역의 소중한 의료자산이다.

다음은 이문수 병원장과의 일문일답.

경영과 수술을 모두 어떻게 감당하나

“경영도 중요하지만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2010년 병원 경영에 나선 이후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직접 수술하고 있다. 5년 전 병원장 취임 당시,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의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영을 맡게 되면 진료나 수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암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위해 희망을 품고 찾아온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불편과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는 초심을 지키고 있다.”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낼 것 같다

“진료가 있는 날은 오전 7시 30분에 진료실 문을 연다. 진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경영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고, 환자들이 물리는 시간대를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진료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직장인들이 출근 전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좋아한다. 진료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수술 일정이 잡혀 있다. 나머지 시간은 병원 경영에 매진하고, 늦은 오후나 저녁에는 강의를 하거나 학회 모임,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한다.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고 이를 규칙적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위암 예방법은 뭔가

“우리나라 김치는 세계 최고의 음식이다. 하지만 너무 짜다. 싱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김장할 때 소금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면 좋겠다. 식당에 가도 짜고 매운 음식이 많다. 음식을 짜고 맵게 먹어도 바로 질환에 걸리지 않지만 10~20년 지나면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가정 식단부터 싱거운 음식으로 바꿔야 한다. 아이들에게 염분을 줄인 식단을 물려주는 것이 자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최인호 작가는 “인생의 밤하늘에서 인연의 빛을 밝혀 나를 반짝이게 해준 사람들에게 고맙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인연론을 강조했다. 이문수 원장과 인연을 맺은 환자들의 마음이 이와 다르지 않을 듯하다. 



십이지장 치환술의 효능

위암 발병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적합



글_ 김용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외과 교수

용어가 너무 어렵다. 영문 의학용어(duodenal switch)를 그대로 해석한 탓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위우회술의 발달 시점과 거의 동일한 1970년대 초반에 시작된, 비교적 긴 역사와 경험을 가진 수술이다. 처음에는 일반 위암 수술과 유사하게 아래 위를 절제하고 남은 위를 소장과 연결하는 형태였다가, 연결 부위 궤양, 덤핑증후군, 및 영양 관련 합병증 발생이 불거지면서 위 유문부를 보존하기 위해 위를 수직으로 절단하는 형태로 변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술 술기 자체의 어려움이 큰 난제

기본적인 개념은 보편적인 고도비만 수술인 위절제술과 위우회술의 장점만을 취한 수술이라 할 수 있다.

거꾸로 설명하면 위우회술의 단점인 연결 부위 궤양과 덤핑증후군의 위험을 없애고 철분 결핍성 빈혈 등과 같은 영양 관련 합병증 발생의 위험을 줄임과 동시에 위절제술의

단점인 당뇨 개선 부분과 체중 감소 부분을 위우회술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위암 발병이 높은 나라에서 정기적인 위내시경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위우회술의 경우 남은 위에 내시경 진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도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뚜렷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긴 기간 동안 다른 수술과 달리 보편화되지 못한 데는 바로 수술 술기 자체의 어려움 때문이다. 물론 서양의 경우 위암 발병이 적어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도 한 부분이라 할 수는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수술 장비 및 술기가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암 발병이 높은 남미, 일본, 유럽 일부 국가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계속적인 임상 연구 필요

본 센터 역시 고도비만 수술 자체에 대한 경험 축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올해 들어 임상연구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대상은 수술의 안정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체질량지수 30-40kg/m²이면서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환자로 제한했다. 아직 짧은 경험이지만 하나 음식이 위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소화와 흡수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과 덤핑 발생이 없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초기 단계이지만, 그 장점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그리고 견고하게 임상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그림 1. 십이지장 치환술의 발달 과정

- A. 초기 고전적인 수술 방식: 아래 위를 절단하고 상부 위와 소장을 연결한 형태로 일반 위암 수술과 유사하다.
- B. 위를 수직으로 절제한 후 십이지장 길목에서 절단하여 소장과 연결한 형태로 덤핑 예방에 큰 목적이 있다.
- C. 본 기관에서 시행하는 수술 형태로 루와이 형인 기존의 수술과 달리 루프 형태로 장 연결 부위가 하나라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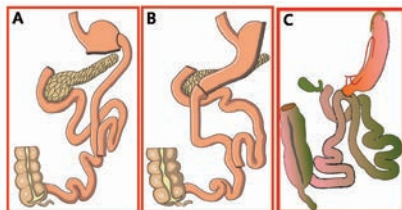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기존의 위절제술과 위우회술 모식도

- A. 위절제술로 수술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당뇨 완치율이나 체중 감소 문제에 있어 위우회술보다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 B. 고도 비만 수술의 표준인 위우회술이다. 당뇨의 호전이나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에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덤핑증상이나 연결 부위 궤양이 문제점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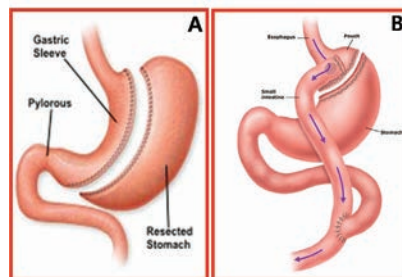


그림 2

그림 3. 본 기관의 십이지장 치환술 환자의 위장관 조영술

- A. 일정 기간 위에 조영제가 머물면서 유문부(가운데 잘록한 부위)가 잘 보존된 모습을 보여준다
- B. 십이지장에서 소장으로 조영제가 넘어가고 있어 위우회술과 유사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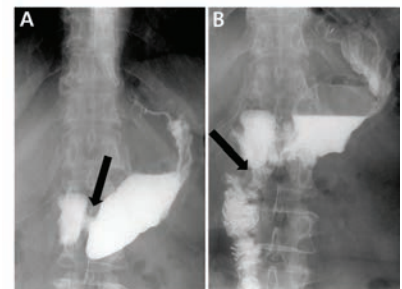


그림 3

“폐암으로 막힌 숨통, 레이저로 뚫어 생명 지킨다”

천안병원 호흡기내과, ‘치료기관지내시경 레이저 치료’



글_ 서기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후두에서 폐로 이어지는 ‘기관’과 ‘기관지’는 호흡에 필요한 공기가 드나드는 길, 숨통이다. 숨통이 절반 이하로 좁아지면 숨을 쉴 수 없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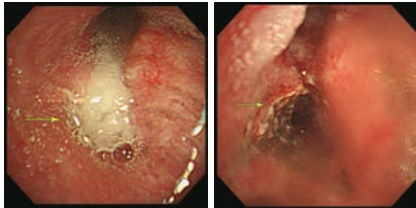
숨통이 좁아지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많은 폐암을 비롯해 양성종양, 기관지 결핵, 인공삽관이나 기관절개술, 기관연하증, 밖에서 기도를 누르는 종양이나 대동맥류, 임파선 비대, 종격동 질환 등이 있다. 그밖에도 1일 100ml 이상의 대량 객혈, 이물질 흡인, 원인을 알 수 없는 성대 아래 협착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숨통이 좁아지면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면 우선 기관 튜브를 삽입해 산소를 공급한다. 과거에는 좁아진 숨통을 치료할 때 대부분 수술을 시행

‘치료기관지내시경 레이저 치료 중인
서기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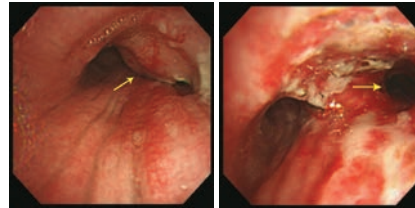
한 달 전부터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던 이OO(남, 61세)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내다 거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우측 중간기관지를 막고 있는 폐암이 발견되었다. 치료기관지내시경 레이저 치료를 통해 기관지를 막고 있는 폐암 덩어리를 제거했으며, 이 씨는 시술 후 곧바로 정상적인 호흡을 되찾았다. 현재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증례1)



시술 전

시술 후

3년 전 자궁경부암 수술 후 항암 및 방사선 치료까지 받았다는 정OO(여, 52세) 씨. 정 씨는 두 달 전부터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이 찾아왔다.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져 움직일 수도 없게 되자 병원을 방문했다. 정밀 검사 결과 정씨는 안타깝게도 암이 재발, 전이되어 기관과 우측 기관지를 막고 있었다. 치료기관지내시경 레이저 치료를 통해 우측 주기관지를 막고 있는 암 덩어리를 제거해냈다. 치료 후 호흡곤란 증상이 사라진 정 씨는 현재 항암 치료 중이다. (사진-증례2)



시술 전

시술 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합병증 등 위험성이 높은 수술보다는 ‘치료기관지내시경 시술’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치료기관지내시경 시술은 수술에 비해 안전하고 합병증이 적으면 서도 치료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치료기관지내시경 시술은 레이저 치료, 냉동 치료, 광역동 치료, 근접 치료, 전기소작술, 풍선 확장술, 스텐트(금속 그물망) 삽입술 등 다양한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가느다란 내시경을 코나 입에 넣어 시행하며,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 수술실에서, 부분마취 시술은 기관지내시경실에서 진행된다.

다양한 치료기관지내시경 시술 가운데, 특히 레이저 치료는 숨통을 막고 있는 종괴(덩어리 조직)를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할 뿐만 아니라, 종괴로 인한 대량 객혈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다.

레이저 치료는 기관지내시경을 삽입한 후, 병변 부위에 레이저 카테터를 가까이 접근시켜 레이저를 충분히 쏘아 숨통을 막고 있는 종괴를 태워 없애고 지혈까지 한다. 태우고 남은 조직은 외과용 수술 도구인 겸자(집게)를 이용해 제거한다. 시술은 대부분 1시간 이내에 끝난다. 치료기관지내시경 시술은 위와 같은 협착 외에도 만성기침,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기관지홍창 누공, 기관식도 누공 치료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기도로 흡인된 모든 이물질 제거에도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만성천식과 폐기종이 심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치료에도 적용해 양호한 치료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서울 이남 유일하고, 시술 경험 풍부한

천안병원 치료기관지내시경클리닉

천안병원 호흡기내과는 수년 전부터 서울 이남에서는 유일하게 치료기관지내시경클리닉을 개설·운영해오고 있으며, 풍부한 시술 경험과 치료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특히 숨통이 막혀 심각한 호흡곤란 증상으로 내원한 응급환자들에게 굴곡기관지내시경과 경직성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해 신속한 시술을 시행함으로써 숨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 클리닉은 또 충청권 최초로 ‘형광기관지내시경’과, 전신마취 없이 종격동경 검사를 시행하는 ‘초음파기관지내시경’ 등 첨단 장비들을 도입해 폐암 진단 및 치료 효과를 극대화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맥경화 심해도 뇌동맥류 환자 치료길 열려

부천병원 김범태 교수팀...목으로 접근하는 뇌혈관 내 수술 시행



글_ 김범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외과 교수

69세의 김복만(女, 가명) 씨는 3주 전 집에서 뒷목이 뻣뻣해지고 구토가 나는 증상을 느꼈다. 병원에서 알게 된 병명은 뇌동맥류. 이는 뇌출혈 전 단계로 혈관이 파열되기 직전의 상태였다. 의료진은 김 씨의 전신 상태와 뇌동맥류의 모양, 위치, 크기 등을 고려해 허벅지를 통한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시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김 씨가 동맥경화가 심해 전신의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여서 허벅지 혹은 손목부터 시작해서는 뇌동맥류로의 접근이 불가능했다. 이럴 경우 보통은 뇌혈관 내 수술을 포기하고 뇌를 직접 열어 수술하는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지만 김 씨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김범태 교수로부터 '목 최소 절개 뇌혈관 내 수술'을 받아 성과도 높이고 회복도 앞당겼다.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전통적인 개두술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뇌혈관 내 수술인 혈관 내 코일색전술이 있다. 혈관 내 수술을 통한 코일색전술은 주로 허

벽지 동맥에 도관을 설치해 뇌로 접근시킨 후 혈관 내에서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에 코일을 채워 절개 없이 수술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수술 모두 수술 성과는 우수하지만, 뇌혈관 내 수술은 개두술에 비해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다.

혈관 내 코일색전술은 우선 허벅지로 접근하고 부적합할 때는 2차적으로 손목 동맥을 통해 접근한다. 피부와 가까이 접근이 쉽고, 수술에 적합한 크기를 가진 동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맥경화가 심해 혈관벽의 탄력성이 떨어지거나 고령으로 인해 혈관이 심하게 휘어져 구불구불한 환자, 또는 질환으로 흉·복부 혈관이 막혀 있는 환자에게는 뇌혈관 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카테터가 혈관을 지나가지 못하거나, 뇌혈관까지 도달하지 못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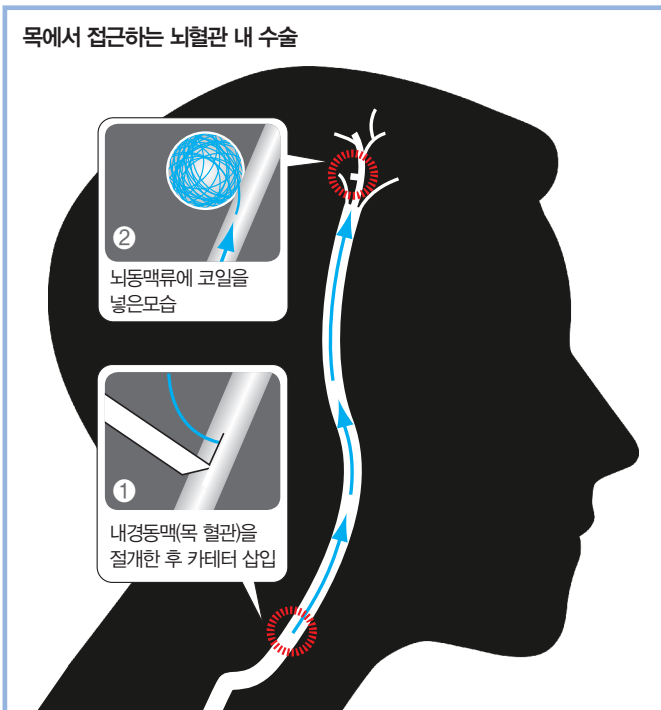
김범태 교수팀, 하이브리드 수술과 시설의 만남 ‘시너지 효과 배가’

최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외과 김범태 교수팀이 동맥경화가 심한 뇌동맥류 환자들을 대상으로 목에서 접근하는 뇌혈관 내 수술을 시행해 성공적인 치료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목의 피부 주름살을 따라서 3~4cm 정도 피부를 절개하고 내경동맥에 직접 도관을 삽입해 뇌혈관 내 수술을 시행하는 수술법이다. 외과적인 수술법과 중재적 시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술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동맥경화가 심한 복부나 팔 등의 혈관을 거치지 않고 내경동맥에서 직접 뇌로 수술용 도관을 접근시킬 수 있다. 또한 수술 후 내경동맥 수술 부위를 직접 봉합함으로써 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김범태 교수팀이 최근 3년간 동맥경화로 인해 대퇴부나 손목 동맥을 통한 도관 접근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수술법을 적용한 결과, 치료 성과가 우수했을 뿐만 아니라

도관삽관 부위의 혈종 발생 등의 부작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을 통한 뇌혈관 내 수술을 받으면 목의 자연스러운 주름 사이로 3~4cm의 작은 흉터만 남게 되며, 목주름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흉터가 숨겨져 미용 부분에서도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목으로 접근하는 뇌혈관 내 수술 시행 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혈종 발생 등의 합병증을 처치하기 위해서는 외과적 수술과 뇌혈관 내 수술 두 가지 수술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의에게 수술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범태 교수는 “수술 시 경부(목)에 혈종이 생기면 다른 부위에 비해 위험하다. 따라서 최대한 지혈을 잘하고 출혈 위험을 줄이면서 수술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뇌혈관 내 수술은 뇌혈관 조영실 혹은 뇌혈관 조영장비가 갖춰진 수술실에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이러한 장비가 잘 갖춰진 병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뇌졸중치료센터는 뇌혈관 조영실 및 수술실에서 수술과 혈관 조영 검사, 시술이 모두 가능한 하이브리드 개념의 시설을 갖추고 뇌질환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땡시힘’ 시절 삼총사가 그립습니다”

순천향의대 4회 박래경 구미병원장의
학창 시절 추억여행



지난해 3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장에 취임한 박래경 원장을 꼭 1년 만에 다시 만났다. 그는 여전히 유쾌했고 소탈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늘 그래왔듯이 새로운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순천향과 함께 해온 그의 좌충우돌 학창 시절을 추억해본다.

글_하상원 사진_심지연

‘땡시험’, 지금 생각해도 다리가 후들거려

순천향 4회 졸업생인 박래경 원장은 20대 이후의 삶을 순천향이란 이름과 함께 해온 ‘순천향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올해로 꼭 20년째, 오직 구미병원에서만 근무하며 그 능력과 성품을 인정받아 수장(首長)의 자리까지 오른 박 원장의 학창 시절은 어땠을까. 한 지역의 병원을 책임지는 위치에 오른만큼 학창 시절 역시 학업에서 수위를 다뤘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야말로 ‘반전’이었다.

“그저 겨우 중간 정도에서 오르락내리락했을 뿐입니다. 도통 공부랑은 친해지기 어렵더군요. 일주일 내내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꽉 채워진 수업 스케줄에 끝도 없이 밀려드는 시험과 과제 등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를 어떻게 졸업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웃음).” 학창 시절의 수많은 난관 중에서도 박 원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일명 ‘땡시험’이라고 불리는 실습 시험이었다고 한다. 이 땡시험은 실습 문제 50여 개 정도를 책상 위에 죽 늘어놓고 진행하는데, ‘땡’하고 종이 울리면 문제 해결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간 제한 실습 시험’의 별칭이었다고 한다.

땡시험의 ‘압박감’을 회상하던 박 원장은 “실 새 없이 몰아치는 ‘땡’ 하는 소리 때문에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려도 학을 뿔 지경이었다”며 너스레를 떨어보였다. 이렇듯 빡빡한 학업 스케줄로 인해 어느순간 자신의 한계와 마주친 박 원장은 메너리즘에 빠졌다고 한다. 성적은 늘 제자리걸음이고 실습과 시험 역시 뒷전으로미루기 일쑤였던 것이다. 그가 무기력했던 나날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고향 친구인 백진기 덕분이었다. 초등(당시 국민학교)·중학교 동창인 백진기를 다시 만난 것은 우연히도 순천향에서였다. 고등학교는 각각 다른 학교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잠시 연락이 끊겼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인연은 고맙게도 순천향의대에서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이다.

“한 마디 약속도 없이 같은 대학, 같은 과를 지원했다는 것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힘겨웠던 시절에 서로 큰 힘이 돼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당시 저와 진기, 백상업이란 친구는 늘 함께 했습니다. ‘삼총사’였죠. 두 친구 덕분에 침체된 대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그간 연락이 뜸해진 박 원장은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삼총사를 소집해야겠다고 말한다. 낡은 서랍 속에 고이 간직했던 추억을 안주 삼아 학창 시절 즐겨 마시던 걸쭉한 막걸리한 사발을 곁들이겠다고 말하는 박 원장은 어느새 30년 전의 개구쟁이로 돌아가 있었다.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란 약속

고만고만한 성적을 제외한다면 박 원장의 학창 시절은 ‘수’라는 성적을 매겨도 무방할 듯하다. 아니, 학창 시절을 넘어 지금까지 순천향을 위한 그의 다양한 행보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장학금’이라도 쥐어줘야 할 터다. 박 원장은 구미병원장 취임 이전까지 구미병원 순천향 동문회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 자명한 병원장직을 수락한 후 동문회장을 후배 교수에게 넘겨줬지만, 그가 뿌린 씨앗이 올곧게 자라 이제 곧 달

콤한 열매를 맺을 시기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순천향의대 총동창회에서는 동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조성, 각종행사 후원, 동문들을 위한 ‘동창회관’ 건립 등을 목표로 꾸준히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는 것이죠.”

박 원장은 구미병원 동문회장 역임 당시 기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자신부터 먼저 기금을 쾌척했으며 ‘말’을 앞선 그의 진솔한 ‘행동’에 구미병원 동문들이 뜻을 함께했다. 이후 타 병원과 개원한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병원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새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소통의 창구가 되겠다’는 당시의 다짐처럼 박 원장은 직원들은 물론, 많은 동문들과 두루 어울리며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왔다. “직원 간 벽 없는 대화와 소통이 오갈 때 비로소 병원에 활기가 돈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상명하복의 보고 위주의 소통이 아닌 교직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박 원장은 성공 소통을 꽃 피우기 위해 사내 마라톤회, 산악회에도 짬 내어 참석 하는 등 현장의 소리를 듣는데 귀 기울이고 있다. 여전히 학창 시절과 마찬가지로 순천향의 발전을 위해 자신일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그의 모습이 성큼 다가온다. 갓 성인이 된 20세부터 30년 이상을 순천향과 함께 해 온 ‘순천향 성골’, 박래경 원장의 즐거운 추억여행이 아쉬움 속에 매조지를 알리고 있었다. 





글_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약전문기자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 행위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나라 꼴이...”란 탄식과 “정신병자”란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들은 ‘국격’이나 ‘정신병’과는 무관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용천 한양대 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노출증 같은 성(性)도착증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 등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며 “선진국에서도 저명인사나 부유층이 성도착증으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들의 비정상적 행위는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보통이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큰 망신을 당해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재발이 많은 것은 그래서다.

성적 트라우마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

행동 양식도 조금씩 다르다. 이른바 ‘바바리맨’도 공공장소에서 성기 노출만 하는 사람이 있고 자위행위까지 해야 만족하는 사람도 있다. 채정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상적인 성

‘바바리맨 증세’

성도착증의 일종, 큰 망신당해도 재발을 높여

생활에선 발기부전 상태이지만 남들이 볼 때 자위행위를 하면 발기가 되는 사람도 있다”며 “어릴 때 성적인 트라우마(외상)가 있었거나 성(性) 상대는 많지만 이들에게 성적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성적인 트라우마의 단적인 예는 어릴 때 부모의 외도를 목격했거나 성적 학대를 받은 경우다. 심리적 갈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2000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아메리칸 뷰티’에선 미국 중산층 가정의 남편(케빈 스페이시)이 딸의 친구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공공장소에서의 행위는 아니지만 영화에선 가족 간의 갈등을 그 원인으로 그리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자신의 이상 행동을 ‘격무로 인한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스트레스가 많으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힘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스트레스와 노출증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다 일탈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성도착증(paraphilia)의 일종

‘바바리맨’ 같은 노출증은 성도착증(paraphilia)의 일종이다. 의학적으로 ‘반복적이고 강렬한 성적 각성·환상·욕구·행동으로서 본인이나 상대에게 고통·모욕감을 주고 이런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성도착증으로 진단된다.

성도착증은 흔히 노출증, 여성물건애(여성의 물건에 대해 흥분), 소아 성애증(소아 기호증), 관음증(觀淫症), 새디즘(성적 가학증), 마조히즘(성적 피학증), 의상도착증(여성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는 것), 접촉 도

도착증 환자가 제 발로 병원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

‘꼭꼭 숨은 병’이란 뜻이다. 전문의 경력 30년째인 박용천 교수도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털어놓아 치료한 경험은 없고 뭔가 사고를 저질러 법적으로 문제가 된 후에 몇 명 만나 본 것이 전부”라고 했다.

착증(상대의 신체 일부분에 몸을 문질러 쾌감이나 성적 흥분을 얻는 것) 등 8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3~4가지 이상을 함께 보이는 사람도 상당수다. 일반적으로 관음증이 가장 흔하고, 노출증·여성물건에 순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가 가장 힘들고 재범률이 60% 가량 되는 것이 아동에게 성욕을 느끼는 소아 기호증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선 성도착증을 정신병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노이로제(신경증)의 일종으로 본다. 현실감각이 마비되고 망상에 빠지는 정신병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노출증 환자는 상대를 해치진 않는다. 상대가 쫓아가면 대부분 겁을 내며 도망간다. 박용천 교



수는 “일반인도 일부 유형의 성도착 기질을 조금씩은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진 않는다”며 “상태가 심하고 지속적인 사람만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한다”고 설명했다.

현 단계에서 김 전 지검장이 성도착증 환자인지는 판정하기 힘들다. 권준수 교수는 “노출증은 성기 등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쾌감을 얻는 것”이며 “김 전 지검장이 어두운 곳에서 외부 자극을 통해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노출증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전문의 치료 받아야

정신과 상담을 거쳐야만 치료가 필요한 병적(病的)인 상태인지 판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도착증 환자가 제 발로 병원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 ‘꼭꼭 숨은 병’이란 뜻이다. 전문의 경력 30년째인 박용천 교수도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털어놓아 치료한 경험은 없고 뭔가 사고를 저질러 법적으로 문제가 된 후에 몇 명 만나 본 것이 전부”라고 했다.

성도착증은 평생 계속되진 않지만 만성적인 질병이다. 성도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처벌 받지는 않지만 이런 욕구를 밖에서 타인을 향해 행동으로 옮기면 불법이다.

성도착증 치료의 첫 단추는 자신의 병을 인정하는 것이다. 김 전 지검장은 “(본인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채정호 교수는 “어릴 때의 성적 트라우마가 원인이라든 그 상처를 어루만지는 치료를 한다”며 “남다르게 태어난 기질적인 문제이거나 원인 불명이거나 어떤 성적 자극에도 반응이 없는 사람이라면 치료가 훨씬 힘들다”고 말했다. 노출증 등 성도착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약은 없다. 소아 기호증 환자에 대해선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래서다. 권준수 교수는 “대개는 의사가 면담을 통해 어릴 적의 성적 트라우마 등 환자의 심리 상태를 확인한 뒤 현재의 일탈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인 문제를 찾아내 알려준다”며 “이 과정에서 환자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치료”라고 소개했다. 





실명을 부르는 황반변성, 조기 진단과 예방이 중요

글_ 이성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안과 교수

우리나라의 실명 인구는 약 80만 명으로 그중, 망막 질환이나 백내장 등에 의한 후천적 실명이 약 7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황반변성은 단순한 노안으로 생각하고 치료 시기를 놓쳐 실명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다. 황반변성은 대부분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청·장년층에서도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미국과 유럽의 실명 1위 질환이며, 우리나라 65세 이상 실명의 1위 질환이기도 하다. 최근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국민 쌍둥이 아빠로 자리 잡은 이휘재 역시, 황반변성으로 꾸준히 진료받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황반변성은 말 그대로 사물의 초점이 맺히는 부위, 즉 황반부에 변성이 생기는 질환이다. 황반은, 눈 속에는 벽지처럼 발라져 있는 '망막'이라고 하는 비닐 세 겹 정도의 얇은 필름의 중심부에 위치하는데 노화, 자외선, 흡연, 고콜레스테롤증, 비타민 부족 등의 원인으로 망막의 바닥에 찌꺼기를 만들게 되고, 이 찌꺼기들이 망막 뒤쪽에 있는 혈관(맥락막)으로부터 망막으로 영양이나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결국 망막에 산소 부족이 발생하면 맥락막으로부터 신생 혈관이 망막으로 자라 들어오게 되는데, 이 혈관은 매우 악한 임시 혈관이라서 쉽게 터진다. 결국 망막에 피가 얼룩지거나 망막 뒤에 피가 고이면서 망막의 기능이 사라진다. 흐리게 보이거나 글자나 직선이 휘어져 보이는 것이 초기 증상이다. 흔히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 비틀려 보일 수 있다. 시력이 많이 저하되고 단어를 읽을 때 글자의 공백이 보이거나 그림을 볼 때 어느 부분이 지워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증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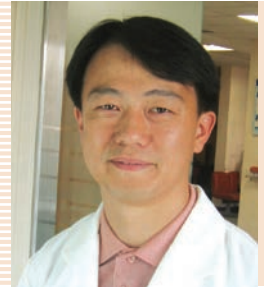
황반변성의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다는 것이다. 신생 혈관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 광역학 요법이 사용됐으며, 최근에는 신생 혈관 생성 단백질을 억제하는 항체를 눈 속에 주사하는 치료법이 실시되고 있지만 약효가 사라지면 신생 혈관은 다시 스멀스멀 기어나온다. 근본적인 완치는 불가능한 셈이다.



'수포성 망막박리'의 경우 출혈이 너무 심해 망막 뒤에 피가 불룩하게 고이는, 최악의 형태다.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면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수술은 환자도 힘들고 의사도 힘들다. 의사는 4~5시간 동안 망막 뒤의 피떡을 제거하기 위한 지루한 싸움을 해야 하고 전신을 마취하여 수술받은 환자는 일주일 이상 엎드려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큰 고통이 따른다. 눈에 가스나 기름을 주입해 떨어진 벽지(망막)를 벽에 다시 붙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실명이 된다고 해도 꾸준히 치료를 병행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조기에 진단하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 외 선글라스로 자외선 차단하기, 항산화제와 미네랄이 풍부한 신선 과일·채소 섭취하기, 금연하기, 꾸준히 운동하기 등의 생활습관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탐스럽다고 탐내면 독버섯 중독 일으킬 수도

글_ 유병대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가을에 접어들면서 산행을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습한 지역에서 알록달록한 버섯들이 등산객을 맞이하고 있어 독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에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는 특히 기온이 비교적 서늘하고 비가 자주 내리는 등 버섯이 자라기에 적절한 날씨다. 신문과 방송에서 '야생버섯 주의' 경고를 하지만 매년 독버섯 중독사고는 발생하고, 그중 몇 사람은 목숨을 잃는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독버섯은 90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독버섯은 구토설사 같은 장염증상만을 보이기도 하지만, 먹물버섯은 환각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광대버섯류는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른다. 독버섯은 섭취 후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에 따라 잠복기가 3시간 이내인 증상 조기 발현군과 잠복기가 6시간 이상인 증상 지연 발현군으로 나눌 수 있다.

사망에 이르는 광대버섯 중독은 증상 지연 발현군에 속한다. 광대버섯류는 amatoxin과 phallotoxin이라는 두 가지 독소를 갖고 있다. 광대버섯류 중독의 임상경과는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기는 잠복기로서 섭취 후 6~24시간동안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2기는 위장관기로서 12~24시간 지속된다. 복통, 설사, 오심, 구토 등 장염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위장관염으로 오인하면서 치료가 늦어지기도 한다. 야생버섯을 먹은 후라면 독버섯 중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3기는 제2 잠복기로서 12~24시간 지속되며 위장관 증상은 호전되나 독소가 간 실질 세포를 파괴시킨다. 4기는 간장기로서 독버섯 섭취 후 48~96시간 이후, 급성간부전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황달 저혈당 경련 등의 임상증상을 보이며 전격성 간부전으로 진행, 평균 8일 이내 사망에 이른다. amatoxin 독소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해독제로는 silymarin과 penicillin G가 유용하다. 빠른 시간내 해독제를 투여 한다면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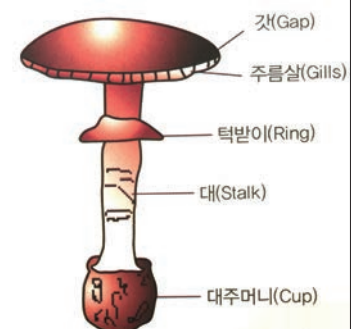
독버섯 중독사고의 예방법은 첫째,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야생 버섯을 먹고 메스꺼움, 구역질, 구토, 설사,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물을 많이 마시게 하여 모두 토해내고 재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이송해서 응급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먹다 남은 버섯을 갖고 가면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독버섯 중독은 잘못된 정보도 한몫 한다. 일반적으로 화려한 색깔을 띠거나 벌레가 먹지 않는 버섯이 독버섯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독성이 강한 독우산광대버섯은 하얀색을 띠며 달팽이와 개미가 붙어산다. 독버섯은 턱받이(ring)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 식용으로 채취되는 주름버섯류와 감별이 힘들어 광대버섯을 주름버섯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야생 식용 버섯으로 알려진 버섯이라도 전문가거나 전문가에게 식용이 가능한지 물어보거나 최근 국립수목원이 개발한 '독버섯 바로알기' 앱을 이용한다면 모양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식용버섯과 독버섯의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버섯의 구조





‘장보리’ 가족 찾아준 유전자 검사, 어떻게 진행하나

글_ 전병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요즈음에는 사체 확인, 고위 공무원의 친자 확인,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등의 소식을 통해 개인 식별 유전자 검사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개인 식별 유전자 검사는 개인 간 차이를 보이는 DNA 다형성 분석을 통해 개인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증거물 확인, 가족 및 혈연관계 확인이 가능해 법의학, 인류학, 고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개인 식별에 이용되는 유전자 지표로는 가변성연쇄반복(VNTR), 짧은 연쇄반복(STR), Y염색체, 미토콘드리아 DNA(mtDNA) 등이 널리 이용된다. 가장 고전적 지표인 가변성연쇄반복은 식별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많은 양의 검체가 필요하고 검사의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반면, 짧은 연쇄반복은 식별능력은 떨어지나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자동분석시스템이 있으며 비교적 소량의 검체로도 분석이 가능해 최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Y염색체 검사는 남성만이 갖는 Y염색체를 분석해 남성과 여성의 체액이 섞여 있는 경우나, 부계 혈통의 확인 등에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미토콘드리아 DNA는 이미 분해가 많이 진행된 검체에서 극소량의 DNA만 존재할 때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독보적 장점이 있고, 모계로만 전달되어 모계 혈통의 확인에 사용할 수 있다.

친자 검사 등에 가장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짧은 연쇄반복 검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짧은 연쇄반복이란 2~7개의 염기로 구성된 단위체(unit)가 DNA 특정 위치에 몇 차례에서 많게는 수십 차례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횟수가 개인별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식별되는 검사법이다. 하나의 짧은 연쇄반복에서 보이는 반복수 종류만으로 개인들을 모두 식별할 수 없으므로 여러 개의 짧은 연쇄반복 위치를 검사하여 개인을 식별하고 있다. 이 반복수는 하나의 짧은 연쇄반복당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아 두 개의 반복수를 보이게 되며, 이러한 반복수의 일치 여부로 친자 여부를 판정한다. 짧은 연쇄반복은 DNA의 다양한 위치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검사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시스템들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 대부분 기관에서는 FBI에서 정한 13개 핵심 짧은 연쇄반복 위치나 이를 일부 변경한 시스템을 사용해 검사를 실시한다. 개인 식별 검사는 확률 검사다. 즉, 증거물 검사의 경우 일치하는 유전자형이 나타나지는지를 확인하고 우연히 일치할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를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계산해서 증거로 활용한다. 가족 확인 검사의 경우 각 위치별로 자식에게서 나온 반복수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일치하는 짧은 연쇄반복이 우연히 같기보다는 실제 부모이기 때문에 일치할 부계지수(P)를 계산한 후 이를 이용해 결합친부지수(CPI)를 통해 생물학적 친부일 가능성, 즉 확률을 계산한다. 하지만 이때 친부모라해도 검사하는 짧은 연쇄반복에서 변이가 발생해 일부 서로 다른 반복수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족관계를 확인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유전자 검사… 검사 전 신중한 판단 필요

유전 검사를 이용한 개인 식별 검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오남용 시 사생활 및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검사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가족력 있으면 1~2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 필수

글_ 안태성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외과 대장암클리닉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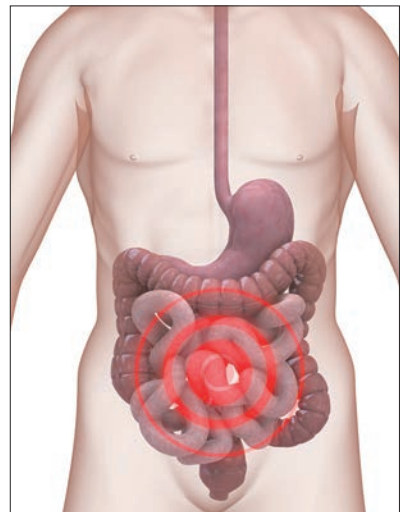
가족이 같이 대장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드물지 않게 듣는다. 과연 대장암은 유전성이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유전되는 대장암도 있다. 바로 유전성 대장암이다.

대장암은 발생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 정상적인 점막에서 용종으로, 그리고 용종이 암으로 변화되는데, 그 과정에는 다양한 유전자들이 관여한다.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켜 용종이 생기게도 하며, 암이 되지 않도록 문지기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고장이 나서 암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기까지 약 20~30년이 걸린다. 우리의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각각 한 세트씩 물려받아 두 세트로 이루어진다. 각 유전자들은 서로 짝을 이루는데 한쪽이 문제가 있어도 다른 쪽이 정상이면 대부분 정상이다. 정상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는데 대략 20~30년이 걸리므로 두 세트가 다 문제가 생기는 데 약 40~60년 이상이 걸리는 셈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모 중 한쪽에서 변이가 발생한 유전자를 받으면 20~30년 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표적인 유전성 대장암으로는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Familial adenomatous polyposis)', '포이츠-예거 증후군' 등이 있다.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은 부모 중 하나만 있어도 발생하는 우성 형질이며, APC 유전자에 의해서 생긴다. APC 유전자는 용종을 만드는 유전자로 대장에 용종이 수백 개 생기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변한다. 포이츠-예거 증후군은 피부에 색소가 침착되는 증상과 함께 대장에 과오종이라는 혹을 만들고 이중 일부가 암으로 바뀌는 유전병이다. 그 외에도 대장암 중 5~10% 정도는 특이 유전자를 지목하기 어려운 유전성 경향을 갖는다. 이를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이라 한다. 암으로의 진행을 막아주는 유전자의 이상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전자는 발현 여부에 따라 암이 발생할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2촌(부모, 자식, 형제) 중 1명이 대장암이 생긴 경우는 약 2~3배, 2명이 대장암이 생긴 경우는 약 3~4배로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 2차 직계가족(조부모, 삼촌, 조카)에서 대장암이 발생한 경우도 위험도가 약 1.5배 증가한다. 유전성 대장암의 진단기준인 '암스테르담 기준'에 부합되면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으로 진단한다.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은 일반적인 대장암에 비해 발병 연령이 젊다. 15% 정도는 40세 이전에 발생한다. 따라서 암스테르담 기준에 포함된다면 20~25세부터는 1~2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잦은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 정기 검사를 통해 용종단계에서 제거 차단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만일 정기적인 검사가 어렵고 암 걱정으로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을 정도라면 예방적으로 대장을 절제하는 방법도 있다.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과의 관련성이 높은 위, 여성생식기와 비뇨기에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암스테르담 기준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과 관련된 암(대장암, 자궁내막암, 소장암, 요관암, 난소암) 환자가 친척 중 최소 3명 이상이고, ▲3명 중 1명이 다른 2명과 직계(부모, 자녀, 형제) 관계이며, ▲최소한 2대에 걸쳐 암이 발생하고, ▲최소 1명은 50세 이전에 암 발생,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등 다른 유전성 대장암 질환이 아니어야 한다. 



속세에서의 단 한 번뿐인 인연

원효 대사 & 요석 공주



글_ 홍지화 (소설가)

가끔 꽤 멋있는 종교인들을 보면, 그 옛날 이성들께나 울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것이라는 환상 때문에 종종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속세에 있으면서도 그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그들만의 매력이 시대를 초월해 1,300여 년 전에도 통했다. 한국 불교의 아버지인 원효 대사에게도 자극히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어 파계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사연이 있었다.

“모든 만물은 제 마음먹기 나름”, 영원한 자유인 원효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원효(元曉, 본명: 서당, 혹은 신당 617~686)의 어머니가 태몽을 꾸었는데 유성을 품에 안는 꿈이었다고 전한다. 그래서 그녀는 뱃속의 아이가 훗날 큰 인물이 될 거라 직감했다. 산달이 가까워진 어느 날, 남편과 나들이에서 돌아오는 길에 뜻밖에 산통 때문에 도저히 집까지 갈 수가 없어 나무에 옷을 매여 길에서 해산했다. 사실인지, 신화적 미화인지 알 수 없지만 전해지는 탄생일화에 따르면 해산할 동안 오색 구름이 그들 주위를 환히 비추었다고 한다. 이윽고 먼동이 터오는 새벽에 한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와 첫 울음을 터뜨렸으니 그가 바로 원효였다.

마치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원효를 이 세상에 낳아주는 게 제 소임인양, 그의 어머니는 아기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동기와 소년기가 어땠는지 역사적으로 기록된 바 없다. 다만, 12세 때 백제와의 전투에 출전했던 아버지를 잃고 17세에는 돌봐주던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 그 이후부터 혈혈단신 신세였다.

때는 고구려·백제·신라가 날이면 날마다 충돌하는 난세였으니, 만물에 연민을 느낀 원효로서는 살생을 피하려면 불교로의 귀의 말고는 별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보편적인 수도승과 달리 스승 없이 독학으로 수행에 임해 자신만의 독자적인 불교 체계와 이론을 정립했다.

당시 당으로 유학을 다녀와야 승려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던 탓에 원효도 유학을 두 번 시도했다. 그러나 첫 번째는 고구려 국경에서 간첩 혐의로 누명을 쓴 탓에 당에 갈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불혹을 넘은 나이에 파계까지 당한 후였으나 큰 깨달음을 얻고자 다시 재도전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당나라에 이르지 못했다. 자다가 열결에 맛있게 마신 물이 해골 물임을 알고, 진리란 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제 마음 안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어 유학을 포기했던 것이다. 이는 유명한 에피소드이다.

그는 깊은 산속 절간에 앉아 염불을 외우며 묵탁만 두들기는 승려로 살기를 거부했다. 그는 스스로를 ‘소성거사’라 칭하고, 당시 귀족들만의 종교였던 불교를 민중 속으로 전파했다. 원효의 대승불교는 그렇게 태어났다. 원효는 당시 귀족들의 반발과 온갖 모함 속에서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우면 극락에 들어갈 있다는 교리로 대승불교를 완성했다. 그는 평생을 일정한 거주지 없이 ‘무에’라는 바가지 모양의 악기 하나 달랑 들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질펀한 잡담과 재미있는 노래를 통해 서민들에게 불교를 전파했다. 그는 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 모든 것에 거리낌없는 사람이라야 한길로 생사를 벗어난다)는 자신의 사상처럼, 70세의 나이로 입적할 때까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제 길을 곳곳이 걸어갔다. 사랑하는 연인과 아들을 마음껏 품에 안지 못했어도 부처 하나로 넘치는 인생이었다.

자루 없는 도끼로 하늘을 떠받들 기둥을 깎다

어느 날부터가, 원효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노래를 부르며 서라벌 거리를 활보했다. 그의 나이 사십대 초반쯤에 있었던 일이다.

“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수허불가부 아직지천주: 누가 나에게 자루 빠진 도끼를 빌려줄 것인가, 나는 그걸로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겠거늘.)”

그가 왜 그런 노래를 부르며 다니는지, 그 노래에 담긴 의미가 원지 이해하는 사람은 당시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후에 삼국통일의 기틀을 다진 태종무열왕은 그 노래의 의미를 정확히 꿰뚫어 멀리서 노래를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대사님이 귀부인을 얻어 어진 아들을 두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버지를 닮아 큰 인물이 되면 나라에 그 이익이 막대하리라.” 즉, 자루 빠진 도끼는 ‘과부’를 뜻하는 것이고, 하늘을 받칠 기둥은 ‘큰 인재’를 뜻함이다.

무열왕은 곧 좋은 묘안이 떠올랐다. 마침 백제와의 전투에서 화랑이었던 남편을 잃고 청상과부가 된 자신의 둘째 딸 요석 공주가 떠올랐던 것이다. 몇 번 궁궐에서 본 공주 역시 그를 사모하는 눈치였다. 언젠가 공주가 그를 위해 승복과 모란꽃을 선물하기도 했다.

딸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무열왕은 원효가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기는 했지만, 정말 그가 여인 때문에 승복을 벗어 던질지 의심스러웠다. 무열왕은 곧 신하들을 시켜 원효를 궁으로 초대하는데 신하들을 만나기도 전에 이를 눈치챈 원효는 월정교를 서성이다가 신하들이 가까이 오자 일부러 강으로 몸을 던진다. 훌쩍 젖은 그는 마침내 공주가 머무르는 요석궁으로 갔다. 젖은 옷을 말린다는 핑계로 그는 요석궁에서 공주와 함께 사흘을 보냈다. 승려의 신분으로서는 파계 행위를 저질렀으나, 인간 원효에게는 정말 속세에서의 단 한 번뿐인 꿈같은 사흘이었다. 요석 공주는 당시 신라 최고의 미인이었으며, 성품 역시 온화하고 자애로웠다고 전해진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그는 뒤도 안돌아보고 궁을 빠져나왔다. 열 달이 지난 후, 마침내 한 아기가 요석궁에서 태어났다. 그 아기가 바로 이두문자의 창제자요, 신라 10현인 중의 한사람이자, 오늘날 문묘배향 십팔현 중 제1인자인 대학자 설총이었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나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 할까.

원효는 파계하였고 아들이 태어나자, 속죄한다는 뜻에서 가사장삼을 벗고 속세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다니며 스스로 소성거사라 칭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속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현재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에는 ‘요석 공주 별궁지’라고 쓴 작은 표지석이 세워져 있는데 이곳은 요석 공주가 원효 대사가 수도하던 소요산에서 아들 설총과 함께 기거하던 터로 전해진다. 그녀는 소요산에 초막을 짓고 수행하던 원효를 따라와서 그 근처에 별궁을 짓고 설총과 함께 아침저녁으로 원효가 있는 곳을 향해 지극정성으로 절을 올렸다고 한다. 이름처럼 이 땅의 불교에 새벽빛 같은 존재였던 원효는 한없이 자신을 낮춘 자유로운 성자였고 소외된 자들의 벗이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그림자에 가려 있어야 했던 요석 공주의 외로움과 그리움은 눈물이 되어 경주 남천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을 것이다. 지아비를 지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아비를 아비라 부를 수 없었던 요석 공주 모자의 한이 짐작가고도 남는다. SCH

일흔의 훈장, 옛 제자를 만나다

어느 가수 제자의 비보로 만난 사제 간의 아름다운 인연

글_ 박도

가을이다. 흔히들 가을은 조락(凋落)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는 풀이나 나뭇잎이 시들어 떨어짐을 말한다. '세월은 쏜 화살과 같다'고 하더니, 어느새 내 나이 일흔이 되었다. 예로부터 일흔은 '고희(古稀)'라 하여, 매우 드물다는 뜻이다. 나도 이제 초목으로 치면 가을을 맞았다. 그래서 이즈음은 언저리를 하나하나 정리해 간다. 얼마 전 명함 집과 편지함을 정리하면서 끝내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 그것은 주로 교단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준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 '가연(佳緣)'은 사제(師弟) 간의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와 문화는 사제로 이어왔기 때문이다. 이전에 나는 제자들이 초청을하면 수락을 극도로 자제해 왔는데, 이나마 건강할 때 극히 자연스럽게 만나 차담을 나누는 것은 한 훈장으로서 큰 기쁨이요, 아름다운 마무리이리라.

어느 제자의 비보

지난 8월 9일, 〈한 번만 더〉의 가수 박성신 제자의 비보에 나는 한동안 먹먹했다. 평소 그에게 격려 전화 한 통 못한 것도 무척 미안했고 가슴 아팠다. 그날 밤 울컥한 마음으로 추모의 글을 써서 "고교 제자였던 가수 박성신을 보내며..."라는 글을 올렸더니 꽤 여러 통의 전화와 문자를 받았다. 주로 제자들이었는데 멀리 미국에서도 일부러 전화를 했다.

"평소 〈한 번만 더〉 노래를 좋아했는데 후배였군요. 아직은 더 열심히 살아야 할 나이인데... 선생님의 글 감동이었습니다. 김미경 올림" 가장 먼저 문자를 보낸 그와 몇 차례 문자와 음성이 오간 끝에 가까운 날 만나기로 했다. 사실 그는 몇 해 전 한 모임에서 만난 후 헤어질 때 나에게 명함을 주며 꼭 자기가 근무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을 들러 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참에 나는 9월 초순에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그는 9월 1일은 아들이 입대하고, 2일은 화요일로 박물관이 휴관한다고 하여, 9월 3일로 낮 12시로 정했다. 나는 점심시간을 피하고자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사이로 고집했으나, 그는 "선생님께서 멀리 서울까지 오시는데 밥 한 끼 대접해 드리지 못한다면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라고 아주 예쁘게 말하여 슬그머니 내 고집을 접었다. 사제가 같이 밥을 먹고 차담을 나누면 더 정감이 깊은 대화를 나눌 테지...

그와 만남을 하루 앞둔 2일, 일기예보를 보자 9월 3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온종일 100~150밀리미터의 폭우가 내린다고 했다. 그에게 며칠 연기하자는 문자를 보내려다가, '야외에 가는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미쳐 내버려 두었다.

새벽잠을 설치다

9월 3일 새벽 1시 무렵, 잠에서 깼다. 보통 때는 화장실을 다녀온 뒤 잠을 청하면 곧 깊이 잠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첫 담임을 배정받은 1971년 2월 28일 밤이 그랬다. 나는 그날 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튿날 어떤 학생들을 만날까 하는 설렘 때문이었다. 그날 밤도 그들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녘에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9월 3일 오전 7시쯤 일어나자 바깥에는 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다. 일기예보를 보자 어제와 다음날이 하루 종일 비가 내린다고 하였다. 곧 그에게 문자가 왔다.

“선생님, 빗길 어려우시면 다음 날로 연기해요”

“애초 약속대로 강행하세.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열차를 타고 가기에…”

“알겠습니다. 선생님, 조심해 오세요.”

청량리행 열차를 타다

나는 아내와 아침밥을 먹은 뒤, 안동발 원주역 오전 9시 34분 출발 청량리행 무궁화호 열차를 탔다. 이즈음 나는 서울나들이 때는 거의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객차 의자에 앉아 차창 밖 풍경을 보면 그 변화무쌍만큼 내 영혼도 매우 자유로워진다.

청량리역에서 내려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종로 3가에서 3호선으로 환승했다. 애초에는 안국역에 내려 옛 모교 터도 보며 걸어가려다가 비도 오는데다가 지하철 맨 뒤 칸에 탔기에 조금 더 가까운 경복궁역에서 내렸다. 그 일대는 고교 시절 내가 얼마나 눈에 발에 익은 곳인가. 삼청동 들머리 민속박물관 정문 수위에게 그의 이름을 대자, 곧 “선생님!” 하고 그가 나타났다.

그가 점심시간이라고 화동 서울시립 정독도서관 쪽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옛 경기고등학교가 아닌가. 나에겐 고교 시절 아침저녁으로 옆구리에 신문을 끼고 무수히 지났던, 가난과 허기와 남루와 열등감… 등으로 점철된 골목과 거리다. 어떤 날은 신문을 한쪽 대문 틈새로 넣다가 셰퍼드에게 바짓가랑이를 뒤통물 물리기도 했다. 그런데 그곳은 아직도 거의 옛 모습 그대로였다.

“어제 아들을 입대시켜 젖 뎠 어미 소처럼 자네 마음이 아프겠네? 더욱이 요즘 군부대 내 구타사건으로 더욱…”

“아니에요, 선생님. 갠 공군학사장교로 입대하기에… 제 남편은 ‘든든한 전우들이 옆에서 큰 힘이 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깐 안심이 돼요.”

나는 그가 말하는 여러 점심 메뉴 가운데 설령탕을 말하자, 그는 맛이 짙은 한 설령탕집으로 안내했다. 나는 그가 아직 10대 소녀로 여겨지는데 올해 52세라고 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1985년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채용된 후 육아로 좀 쉬었다가 1996년 국립민속박물관에 다시 재취업하여 현재에 이르렀다고 한다. 나는 누군가? 그의 선생이 아닌가. 그가 나에게 비가 맞으면 가라고 하였지만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펼치고선 나섰다. 나는 그에게 그만 사무실로 들어가라고 해도, 그는 우산을 받치고 100여 미터가 넘는 박물관 정문까지 배웅한 뒤 거기서 헤어졌다. 이튿날 메일함을 열자 그의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선생님, 저도 일흔이 되었을 때 선생님처럼 멋진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미겸 올림. 



깨끗하고 정직한 맛의 웰빙 이탈리아 레스토랑

그란구스토 (GRAN GUSTO)



글_손문선 <구루메 빠라디> 저자
사진_홍인근(튜브스튜디오)

수많은 식당들이 들고나는 강남에서 10년 가까이 우직하게 한자리를 지켜온 그란구스토.

이집에 들어서면 10여년의 지난 세월이 느껴지지 않는다. 견고하게 지은 건물 외관부터 유리과 금속을 매치해 단순하게 꾸민 실내까지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분위기를 내고 있다. 1층과 2층의 복층 구조인데 시원스레 2층까지 뚫린 전면의 창 너머로 곧게 뻗은 푸른 대나무들이 인상적이다. 룬은 따로 없지만 아늑한 2층에서 화식이나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 실내의 아기자기한 꽃과 사랑스러운

테이블 세팅은 모두 이 셰프의 아내의 아이디어로 직접 새벽 꽃시장에 가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꼭 닮은 부부의 모습이다.

그란구스토는 영어로 Great Taste 라는 뜻. 이집의 음식은 이탈리아 중에서도 남부 시칠리아 풍의 해산물 요리가 강세다. 지중해 스타일의 심플한 조리법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려낸다. 때문에 신선한 재료의 구입이 생명. 이 셰프가 매일 새벽장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싱싱한 재료를 보는 순간 이집만의 데일리메뉴가 결정되고 손님들은 매일매일 그날의 식재료에 따라 다른 요리를 맛볼 수 있다. 가장 신선한 제철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덕분에 가격도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의 데일리 메뉴는 전체 손님 중 70%가 넘게 찾는 정도로 인기가 자자하다. 데일리코스 외에 피자, 스테이크, 파스타, 해산물 등 단품메뉴도 다양하다. 모임이 있을 때는 원하는 가격에 맞춰 세트를 구성해주기도 한다.

이집의 시그니처 메뉴인 고등어파스타도 이탈리아에서 즐겨 먹는 정어리요리에 착안해서 만든 것으로 우리입맛에 꼭 맞아 인기가 자자하다. 신선한 생물 고등어만을 사용해 비린내가 없고 특유의 고소한 맛과 대파의 달콤한 감칠맛이 어우러진 웰빙 파스타로 이탈리아 본토 사람들도 먹어보고 무릎을 쳤다고 한다. 고등어 외에 참치, 전어 등 제철에 흔하게 나는 우리 생선과 허브의 궁합을 맞추어 이집만의 특별한 파스타를 만들어 낸다.

이 셰프는 음식을 만들 때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 일체의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고 소스나 육수, 드레싱, 피클 등 모든 것을 100% 만들어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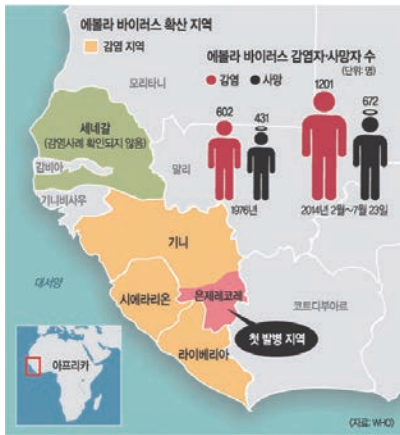
그가 구입하는 공산품이라곤 토마토 통조림 정도. 음식 맛도 이탈리아 남부 스타일인데도 강하지 않고 깔끔하며 아주 부드러운 가운데 매콤하거나 감칠 맛 등으로 포인트만 살짝 준다. 요즘의 핫한 요리사들이 만들어내는 스파이시함 대신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정직하고 깨끗한 맛 그 자체로 먹을수록 입맛이 당기며 편안하다. SCH





세계의 싱크홀, '에볼라' 공포

감염 위험 지역에서 온 사람과 접촉 피하는 것이 중요



글_ 한정현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가 여전히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9월 9일 현재 앞으로 3주 이내에 수천 명이 추가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9월 9일(현지시각) "6일 기준 서아프리카 가나,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5개국의 에볼라 감염자는 4천293명, 사망자는 2천296명"이라며 "이중 라이베리아에서만 감염자가 2천46명, 사망자 1천224명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진은 "에볼라의 숙주인 과일 박쥐가 중부 및 서부 아프리카 22개국에 걸쳐 있는 산림을 통해 에볼라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며 아직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은 다른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도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올바른 대처시 공포떨 필요 없어...전세계 확산은 가능성 희박

에볼라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신부가 '지맵'이라는 치료제를 투여 받고도 사망하는 일까지 생기자 전 세계에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치료약이 명확하지 않은 바이러스성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많은 국민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해 잘

못 알려진 점도 상당히 많고, 이 잘못된 정보가 두려움을 더 고조시키고 있다.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의연하게 대처한다면 국내에 서아프리카와 같은 파국적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우선 에볼라바이러스가 마치 갑자기 등장한 신종 바이러스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에볼라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은 1976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이미 첫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후 가봉, 코트디부아르, 수단, 우간다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발생했으나, 수십 명 이내의 감염자여서 큰 관심을 끌지 못했을 뿐이다. 에볼라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사태가 이미 빠르게 조기 진화된 전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에볼라바이러스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던 사스나 신종플루와 다른 전파 경로를 갖고 있다. 사스나 신종플루는 호흡기로 전파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질병의 확산이 무척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됐지만, 에볼라바이러스는 주로 환자의 체액이나 혈액에 노출됐을 때 전염되는 질환이다.

그러므로 호흡기 질환처럼 광범위하게 전파될 가능성은 적다. 에볼라바이러스의 2차 감염자 대부분이 환자를 돌보던 가족이나 의료진인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체액이나 혈액의 노출이 없는 환자와 함께한 짧은 시간 동행이나 악수만으로는 전염되지 않으며, 잠복기 상태에서도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현재 치료 약제나 백신은 시판된 것이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치료 후보 물질과 백신 후보 물질은 개발돼 다행스럽다. 현재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1~2년 내에 시판될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 개발한 파비피라비르라는 치료제는 인플루엔자 치료제이지만 에볼라바이러스에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사람 대상의 연구가 진행돼 안정성은 증명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출시될 것이다.

에볼라바이러스의 유행은 최근 여러 감염 질환의 유행과 맥락을 같이한다. 사스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동남아시아의 Dengue 大유행 같은 일이 질병의 유행으로만 볼 것이 아닌 이유는, 대개 동물 사이에서 잠재해 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의 환경파괴로 인해 동물 또는 곤충과 사람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꼭 필요한 단기적 예방 대책과 해결에도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인간이 자행하는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여겨야 할 것이다.

사스나 신종플루 때의 공포감이 트라우마로 찾아온다. 하지만 에볼라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스·신종플루와 다른 확산 양상을 보인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여러 얼굴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법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구촌 전체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그 예방법에 관심이 높다. 치사율이 워낙 높은데다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무엇보다 사전 예방을 통해 감염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 경로는 체액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좋은 예방법은 발병 지역에 가지 않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기니를 비롯해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같은 서아프리카 지역에 '특별여행경보'를 내린 상태다. 실제로 최근 한 종교단체가 아프리카 지역 봉사활동을 추진했으나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취소됐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중간숙주는 박쥐나 원숭이 같은 동물들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 동물이나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과의 신체 접촉을 하는 건 금물이다. 감염 위험자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이불, 욕실 등을 같이 쓰는 것을 피해야 한다. 감염 위험 지역에서 온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것도 예방법 중 하나다. 모든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예방 수칙인 수시로 손을 씻고 음식물은 익혀 먹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두통과 발열, 설사·구토 등 감염 초기 증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7~10일.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열흘 안에 사망할 위험이 높다. 



천 년의 신비를 간직한 ‘삼다수 숲길’

글·사진_ 김진국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장내과 교수

올해 '숲길' 걷기 테마의 네 번째 코스는 생수 이름으로 익숙한 '삼다수 숲길'이다. 제주도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삼다수 숲길은 삼다수 마을에서 과거 임도로 사용하던 길을 활용해 조성한 숲길이다. 봄에는 복수초 군락, 여름에는 산수국 군란, 가을에는 하천을 따라 물든 단풍이 명품이다. 자연스레 형성된 분재형 숲의 경관과 낙엽활엽수림의 교육적 활용 가치를 인정받아 2010 '제1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천년의 숲 부문 '어울림상'을 수상했다.

건강 TIP. 꾸준한 운동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다. 노년기가 되기 전부터 평소에 지속적으로 운동한 사람은 치매 발생 확률이 크게 감소한다. 운동을 하면 뇌로 전달되는 피의 흐름이 더욱 좋아지기 때문이다.



푸른 초원을 달리는 말과 함께 걷는 길, 삼다수 목장길

삼다수 숲길 걷기를 시작하는 것은 다소 복잡하다. 초입에서 걸어서 약 30분 거리인 교래리 종합복지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작 지점에 목장이 많아 말과 소에게 차량 소음을 최소화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니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수궁이 간다. 초입까지 가는 길도 나쁘지 않다. 가을 가에는 대나무들이 늘어서 안내를 해주고, 현무암 돌담장에 만개한 꽃들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환영한다. 잠자리를 잡겠다고 따라서 뛰어가는 개구쟁이 사내아이의 웃음 가득한 얼굴이 귀엽다.

야생화 감상에 폭 빠져있다 보니 어느새 눈앞에 펼쳐진 푸른 초원 위로 마음껏 달리는 말들이 보인다. 초원에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와 늘씬한 몸매의 말들이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 초원 옆 오르편 개울물이 모이는 곳은 예전에 마을 주민들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쓰였던 소중한 곳으로, 물의 이름도 예쁜 '파란물'이다. 시골길 군데군데 어찌 내린 빗물이 고여 호수를 이루고 있다. 수풀 그림자와 어우러져 예쁜 하트모양을 만든 빗물, 거인 발자국을 만든 빗물은 자연이 만든 예술 작품이다. 숲길 입구가 가까워졌는지 길 옆으로 가로수들이 울창해진다. 빨간색 리본의 삼다수 숲길 표지가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한다.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녹색 천국

삼나무 병정들 호위를 받으며 숲길에 들어선다. 찜푸린 날씨가 무색할 정도로 환한 초록빛에 마음까지 시원해진다. 방문객들이 걷기 편하도록 숲에는 아자나무 매트를 깔아놓았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건강한 숲의 향을 들이키니 '천국의 숲'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끼가 내려앉은 삼나무 그루터기는 마치 천국의 밤하늘에 수놓인 초록별 같다.

고개를 넘어서 다양한 나무들이 어우러진 분재가 보인다. 대자연이 만들어준 신비하고 아름다운 분재이다. 오솔길 양편으로 나무 밑에서 제주조릿대 군락이 만들어졌다. 비오는 습한 날씨를 좋아하는 버섯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아름다움으로 방문객들을 유혹한다. 전형적인 우산 모양의 버섯부터 나무 테이블을 연상시키는 버섯, 투구 모양의 버섯까지 모양도 크기도 다양하다. 잠시 쉼터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천국 숲이 뽐어내는 신비로움에 취해본다.

잠시 후 갈림길이 나타난다. 짧은 코스인 1 코스로 방향을 돌리자 또 다른 매력의 세계가 펼쳐진다. 오솔길 주변으로 산수국들이 만개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그 웃음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숲의 매력에 빠져 걷다 보니 길 말미에 다다랐다. 시원하게 쪽쪽 뿜은 삼나무들과의 헤어짐이 우리 부부는 못내 아쉽다. 다시 목장길을 따라 야생화를 사진에 담으며 주차장으로 향한다. 3시간 여를 운동한 보상으로 교래 별미인 닭샤브샤브를 즐겨본다. 



순천향대학교병원 개원 40주년 기념 신춘문에 공모 수상집



순천향대서울병원(병원장 서유성)이 최근 내·외부 고객들의 병원 경험 수기를 하나로 엮은 신춘문에 공모 수상집을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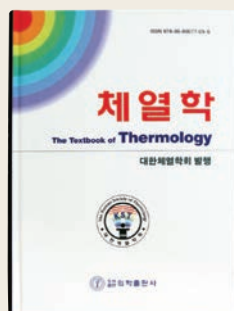
개원 40주년을 맞아 개최한 순천향 신춘문에 공모전에서 선정된 10개(수필 6편, 시 4편) 작품을 한 편의 책으로 펴낸 것. 수상집은 병원을 방문하여 경험한 고객들의 감동적인 사연과 가슴 따뜻한 체험 수기 그리고 친절한 순천향, 사랑의 순천향을 몸소 실천한 병원 직원들의 사연을 함께 담고 있다.

최우수상은 유방암 투병 과정을 담담하게 묘사한 주남주 고객의 '동거 5년'으로 치료과정에서 정신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피력했다.

우수상은 알려지기가 있는 본인의 심경을 표현한 문근영 고객의 '알려지 봄날'로, 알려지기가 있는 사람들의 애환을 잘 전달하고 있다. 또 중환자실의 일상을 잔잔하게 그려낸 김미영 간호사의 '사랑하는 순천 씨'도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 느껴진다. 서유성 병원장은 "공모작들 중에서 좋은 글들이 많아서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오늘의 순천향이 있기까지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과 순천향을 믿고 찾아주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체열학

편찬위원장 순천향대의대 조성진 교수



대한체열학회(회장 최만용)가 최근 '체열학' 교과서를 발행했다. 2003년 첫 출간한 '임상체열학'의 개정판으로 조성진 순천향대의대 신경외과 교수가 편찬위원장을 맡았고 관련 전문가 32명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체열학의 기초부터 응용까지 폭 넓은 내용을 담았고, 체열 영상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풍부한 컬러 사진과 그림을 삽입했다. 기초 분야에서는 체열학의 역사와 세계 체열학회, 적외선 체열 영상 진단법의 역사적 변천, 적외선 열영상 측정 원리 및 장치, 물리적 속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응용 분야는 열 유체 시스템 응용, 적외선 열화상 비파괴검사, 적외선 열 영상을 이용한 보안감시, 열화상의 화장품 연구 응용, 기능성 의복과 열화상, 열화상을 이용한 공항세관에서의 우범자 색출 연구 등의 다양한 내용을 수록했다. 임상 분야에서는 피부 온도와 조절 기능의 기초, 중추성 통증, 통증과 체열 진단, 대상포진, 성상신경절 차단, 다한증, 당뇨병성 족부 질환, 요추간판탈출증의 적외 체열촬영, 유방체열 촬영, 비뇨기과 영역의 체열촬영 등을 담고 있다.

부록에는 체열검사 결과 보고서, 적외선 체열상 검사의 미래, 영문 Q & A를 포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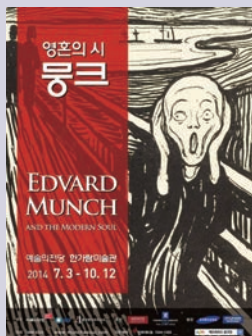
조성진 교과서 편찬위원장은 "체열검사로 인체를 스캔하여 얻는 정보를 이해하고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적외선의 특성과 물리적 속성을 잘 알아야 한다. 또한 이를 질병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적용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교과서를 통해 임상의사는 물론, 의리기사, 산업 분야 및 관련 분야를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체열학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서출판 의학출판사 정가 100,000원, 구입 문의 02-709-9270



132년 전통과 명성,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필 내한 공연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13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내한 공연한다. 지휘 거장 유리 테미르카노프가 이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오케스트라는 2008년 클래식 음악 전문 잡지 '그라모폰'이 선정한 세계 오케스트라 순위에서 16위를 차지한 세계적인 관현악단이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마에스트로 중 한명으로 꼽히는 예프게니 므라빈스키(1903~1988)의 뒤를 이어 1988년 상임 지휘자에 취임한 유리 테미르카노프는 26년째 악단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그 전통과 명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오는 10월 9~10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 선다. 이틀에 걸쳐 차이콥스키의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와 제4번 교향곡, 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를 공연한다. 또 9일에는 한국의 '스타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의 협연으로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을, 10일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함께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들려준다. 2011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내한 공연은 유리 테미르카노프의 75세 생일과 취임 2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다. 러시아악 연주에서 최고라는 찬사를 받는 이 악단이 빚어내는 러시아 대표 작곡가들의 명곡을 직접 감상 할 수 있는 기회다.



'몽크전(展)' 국내 첫 전시

'에드바르트 몽크-영혼의 시'전(展)은 10월 12일까지 서울 서초구 한가람미술관서 열린다. 작품 '절규'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미술가 '몽크'의 작품이 드디어 한국 땅을 밟고 국내 첫 전시를 실시했다. '생의 프로젝트'에서 작업했던 작품을 주제로 꾸며지는 이번 전시는 상실(Loss), 불안(Anxiety), 에로스(Eros), 사랑과 고통(Love and Pain), 욕망(Desire), 여자(Woman), 붉은 방(The Red Room) 섹션으로 나뉜다. 몽크는 평생에 걸쳐 회화와 판화 작품을 통해 1890년대 이른바 '생의 프리즈'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몽크는 사랑, 죽음 등 인간의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경험을 작품 안에 담았다. 또한 유명한 작품 '병실에서의 죽음', '임종의 자리에서', '병든 아이'와 불안에 대한 작품 '절규', '불안', '키스'등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여름밤, 목소리', '뱀파이어', '질투', 등 다수의 대표작도 전시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입장료는 어린이 10,000원, 청소년 12,000원, 성인은 15,000원이다. 또한 전시설명은 오전 11시 20분, 오후 2시, 5시에 이뤄져 소요시간은 약 40분이다.



뮤지컬 '레베카'

뮤지컬 '레베카'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은 뮤지컬 '엘리자벳' '모차르트'의 극작가 미하엘 쿤체와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으로, 1938년 출간된 대프니 듀 모리에(Daphne du Maurier)가 쓴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스릴러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동명 영화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됐다. 로맨스와 서스펜스가 결합된 스토리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만들고, 음산한 미스터리와 깊은 감정의 변화까지 절묘하게 담은 드라마틱한 음악은 작품에 대한 몰입도를 끌어올린다. 여기에 대저택 맨들리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을 생생하게 연출하기 위해 뜨거운 불길에 치솟는 특수 장치를 설치하는 등 심혈을 기울인 무대로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이번 작품에는 민영기, 오만석, 엄기준, 옥주현, 신영숙, 리사, 임혜영, 오소연 등이 캐스팅됐으며 오는 11월 9일까지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공연된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신경외과학교실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은 7월 5일 서울병원 동은대강당에서 창립 4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변박장 최순관 등 원로 교수와 정용구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신경외과학교실 동문과 교수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학술대회는 의료 문서, 전문적 정위 방사선 수술, 신경해부학과 혈관 분야, 척추 분야, 동문세션 등 총 5개 분야로 나눠 4~6개의 연제를 발표했다.



신경과학교실 창립 30주년 기념 연수강좌

순천향대의대 신경과학교실은 30일 동은대강당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저녁에는 하얏트호텔에서 축하 만찬을 가졌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순천향대의대 신경과학교실은 1984년 순천향대학교의 설립자인 고(故) 항설 서석조 박사가 주임교수로 부임하면서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이광호, 안무영 교수가 부임했고 1998년 8월 21일부로 인턴 및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을 받았다. 이후 순천향대학 의학부 신경과학교실을 창설하면서 본격적인 신경과 진료를 했다. 30년 동안 65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순천향대학교

2015년 신입생 전원에게 기숙사 제공

순천향대는 20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을 비롯, 링크(LINC) 사업 2단계 진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5개 분야 등에 선정됐다. 특히 대입 전형이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지원하는 고교교육 정상화와 관련해서 8억 원의 재정 지원금을 받게 됐다. 순천향대는 '나눔 교육을 실현하는 유니크 유니버시티'라는 슬로건 아래 이를 실천하기 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2015년 신입생 전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기숙형 공동체 학습 프로그램인 SRC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3,00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 외에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신축하고 있다.

취업-창업 지원 역량 뛰어난 '청년드림' 최우수대학

순천향대학교가 동아일보와 채널A가 딜로이트 컨설팅과 함께 실시한 2014년 청년드림대학 선정에서 새로운 최우수 대학에 뽑혔다. 2년째 맞는 청년드림대학은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가운데 49개 대학을 골라 평가를 진행했다.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가운데 49곳 대학들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순천향대학교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취업과 창업에 관심을 쏟아 교과과정을 짜거나 동아리를 지원할 때 특화된 전략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년드림대학은 입시 성적 순위, 대학의 연구력 순위 위주로 고착화된 대학의 서열을 깨고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을 발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병원 발전을 위한 교원 및 관리자 워크숍

2014년 교원 및 관리자 워크숍이 7월 5일 오후부터 6일 오전까지 여주 썬밸리 호텔에서 열렸다. 병원의 당면 과제와 중장기계획, 상반기 경영 현황과 미래전략실 중간 발표, SU-III 고도화사업 진행 현황,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과 전략 발표 등을 발표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천향대서울병원, 문정림 국회의원 홍보대사 위촉

서울병원은 8월 21일 원내 향설교육관 회의실에서 문정림 국회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문정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바람직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가톨릭의대 재학의학과 교수,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한 보건 의료 전문가다. 문정림 국회의원은 "인간사랑 생명존중이라는 숭고한 정신을 갖고 있는 순천향대서울병원의 홍보대사를 맡게 돼서 기쁘다"며 "병원과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업그레이드

서울병원은 최근 병동 환자를 위해 책을 대여해 주는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했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오래전부터 사회사업팀 주관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자원 봉사자들이 병동을 돌며 책을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책의 노후와 분실 등으로 이용률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천주교 원목실과 원내 천주교 교우회(전진석 루카회 회장, 신장내과교수), 그리고 순천향나눔회의 후원으로 책과 이동카트를 구입하고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재정비했다. 교직원들도 소장하고 있던 책을 기부해 도서관 카트를 알차게 채웠다.



하계 병원 일일 체험 행사 개최

서울병원은 7월 25일 오후 12시 30분부터 2014년도 병원 일일체험학습 행사를 열었다. 교직원 자녀를 포함한 중·고등 학생 42명을 대상으로 병원 소개와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 직업 소개, 진료실과 검사실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제1회 이데일리글로벌헬스케어 '응급 의료 치료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서울병원이 7월 10일 63시티 시티룸에서 열린 제1회 이데일리 글로벌헬스케어 대상 시상식에서 응급 의료 치료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지난 3월 말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새롭게 태어났다. 공간 확장은 물론 응급 환자 진료에 적합한 공간 배치와 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이동을 최대한 줄이고,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진료와 처치를 받을 수 있게 변모한 것이 특징이다.



순천향대의대 박희숙, 이동화, 이민혁 교수 정년 퇴임 이민혁 교수는 순천향대서울병원서 계속 진료

순천향대학교는 8월 27일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동은대강당에서 박희숙(내과학교실 중앙혈액내과), 이동화(병리학교실 병리과), 이민혁(외과학교실 외과) 교수의 정년 퇴임식 및 명예교수 임명식을 갖고 건승을 기원했다.



학교법인 동은학원은 그동안 병원과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한 세 명의 교수에게 명예교수 위촉장과 공로패, 기념 메달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순천향대의대 동창회에서는 퇴직기념패와 선물을 전달했다. 서교일 총장은 축사를 통해 "세 분 교수님은 우리 대학과 병원뿐 아니라 의료계의 거장이시고, 순천향의 발전을 이끌어 주신 고마운 분들"이라며 "순천향대서울병원에 계속 남아서 후배들과 환자를 돌봐주시고 이민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순천향을 떠나시는 박희숙, 이동화 교수님의 앞날에도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PiFan 공식 지정병원으로 선정

부천병원이 7월 17일~27일 개최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PiFan의 유일한 공식지정병원으로 선정돼 이와 관련된 협약서를 (사)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앰블런스 지원 및 영화제 전용 Hot-line을 운영해 응급 환자 이송을 담당했다. 부천시청 잔디광장에 'PiFan 관람객을 위한 헬스케어 라운지'를 오픈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혈압, 체지방 측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제8회 미래 의대생을 위한 1일 병원 체험 행사 개최

'제8회 미래 의대생을 위한 1일 병원 체험 행사'가 7월 29일, 30일 이틀간 개최됐다. 미래에 '의사'를 꿈꾸는 중·고등학생들을 선발, 초청해 직업 체험의 장을 열어주는 사회공헌 행사로, 올해는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약 120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모의 복강경수술 실습, 수술실 투어, 동물 실험, 의학시뮬레이션센터 체험,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체험했으며 의학의 역사, 멘토와의 만남(순천향대 의과대학생들의 입학 후기) 등 강연을 통해 '꿈'을 다졌다.



행복정원 아카데미 2기 출범

'행복정원 아카데미' 2기가 8월 20일 출범했다. 부천병원 병원서비스 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행복정원 아카데미는 직원들이 녹색병원을 조성하는 과정을 통해 직장 스트레스를 날리고 녹색식물을 보면서 환자와 교직원들이 함께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서울병원 동정

서유성 순천향대서울병원장,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서유성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장이 7월 12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주최로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24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식에서 보건부문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논문은 지난해 10월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발표한 '고령의 고관절 골절 환자의 수술 후 사망률 및 관련 인자'이며 2014년 대한정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만례재단상'을 받은 논문이기도 하다.

김재현 비뇨기과 교수 미래의학자상

김재현 비뇨기과 교수가 7월 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회 미래의학자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청년의사가 주관하고 LG생명과학이 후원하는 미래의학자상은 임상강사(펠로우)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상으로, 한국의학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세계 의학의 선두주자가 될 젊은 연구자들을 선정해 격려하고 있다.

부천병원 동정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박준식, 소화기내과 문종호 교수,

순천향대학교 최우수학술상과 우수학술상 수상

8.26 순천향대학교 내 전체 교수 중 2013년도 교내 연구 논문 업적이 가장 우수한 교수로 선정돼 수상

신원환 교수 / 신경외과

8.28 정년퇴임 및 명예교수 임명

이유경 교수 / 진단검사의학과

이승연 교수 / 이비인후과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2015년 판 등재

이소영 교수 / 정신건강의학과

8.9~15 남아프리카 IACAPAP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김용하 교수 / 정형외과

8.14~16 대만 PASMISS학회에서 구연 발표

장지호 교수 / 안과

8.18~22 스웨덴 ISP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문종호 교수 / 소화기내과

8.20~24 말레이시아 소화기학회에서 구연 발표

8.28~29 중국 첩담도내시경학회에서 구연 발표

최형오 교수 / 심장내과

8.29~9.4 스페인 ESC Congress 2014에서 포스터 발표

임훈 교수 / 응급의학과

8.30~9.3 이탈리아 AMEE 2014에서 포스터 발표

김영석 교수 / 소화기내과

9.4~6 일본 국제간암연구회에서 포스터 발표

박태관 교수 / 안과

9.11~14 영국 유럽망막학회에서 구연 발표

박재성 교수 / 영상의학과

9.12~14 인도네시아 ITRS학회에서 구연 발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

부천병원이 8월 27일 본관 1층 로비 앞에서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Ice Bucket Challenge)’ 행사에 동참했다. 약 20명의 의사, 간호사, 국제진료 코디네이터, 외국인 환자의 보호자 등이 모여 파도타기 형식으로 얼음물 세례를 받았고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해 루게릭병 환자를 위해 기부했다. 외과 신용진 교수는 다음 주자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내시경복강경학회 김선한 이사장,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박래경 원장 등 3명을 지목했다.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오케스트라

순천향의과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인 피아체블레(지도 교수 김형철 외과 교수) 제36회 정기 연주회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오케스트라’가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부천시청 대강당 어울마당에서 부천시민, 교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클래식과 영화음악 6곡이 연주됐으며, (사)나눔과 섬김 어린이 합창단이 협연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블라디보스톡 팝스 오케스트라 공연

부천병원이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블라디보스톡 팝스 오케스트라 공연’을 9월 2일 오후 7시 원내 별관 5층 향설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본 공연에 앞서 12시 30분부터는 블라디보스톡 팝스 오케스트라 현악 4중주 공연을 열었다. 블라디보스톡 팝스 오케스트라는 이번 공연에서 ‘랩소디 인 블루’ ‘다이내믹 아리랑’ ‘여인의 향기’ ‘닥터 지바고’ ‘라라의 테마’ ‘오페라의 유령’ 이중창 등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는 영화 및 뮤지컬 음악을 연주했다. 한편, 블라디보스톡 팝스 오케스트라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국립음악원 출신들을 중심으로 블라디보스톡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하바로프스크 등 극동지역 음악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케스트라 콘서트뿐만 아니라 오페라, 뮤지컬, 팝스, 영화음악, 대중가요, 민속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연주한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2014 병원협회 신임 평가 현지 실사 마쳐

천안병원은 7월 8일 현지 실사로 진행된 ‘2014년도 수련병원 실태 조사 및 병원 신임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병원협회가 주관하는 평가는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적정 진료 환경과 수련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실시 결과 천안병원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를 위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김홍주 병원장을 반장으로 한 총 8명의 평가단이 병원을 방문했으며,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평가는 진료, 진료 지원, 간호, 질 관리, 감염관리, 의무 기록, 수련 및 병원 행정 등 다양한 부문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정식 평가 결과는 올 12월 경 통보될 예정이다.



공주의료원과 협력병원 협약 체결

천안병원은 7월 15일 공주의료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맺고 지역 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공주의료원에서 열린 협약식은 공주의료원 신현정 원장(사진 좌측)과 천안병원 박상홍 부원장이 양측 병원을 대표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공주의료원은 현재 233병상을 운영 중이며, 총 13개 진료과의 22명 의료진이 공주시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천안병원은 현재 충남,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남부 지역의 527개 병·의원과 협력병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 경영진 초청연수 실시

천안병원은 7월 23일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 경영진을 초청해 ‘병원 견학과 1일 연수’를 실시했다. 병원을 방문한 Dr. Nhep Angkeabos 병원장을 비롯한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 경영진 4명은 소아응급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등 천안병원의 여러 소아진료시스템들을 둘러본 후, 다양한 운영 노하우도 배우고 돌아갔다. 다양한 소아진료 시설들을 둘러 본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 경영진은 천안병원의 선진 소아진료시스템에 감탄하며 연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그 모습을 담아내기에 바빴다.



환자에게 길 찾아주는 ‘동행 봉사 서비스’ 호응

천안병원은 최근 환자들을 진료실과 검사실까지 안내해주는 ‘동행 봉사 서비스’를 시작했다. 외래진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8월부터 시작된 서비스는 병원을 처음 방문해 내부 지리에 어두운 초진 환자들에게 길 안내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길안내는 직원이 아닌 학생 자원 봉사자들이 담당한다. 병원은 친절한 안내를 위해 교육을 마친 봉사자들을 외래진료관 2층 종합안내창구에 배치했으며, 눈에 잘 띄도록 노란 조끼도 입혔다. 서비스 범위는 초진환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 환자나 장애우들도 도움을 요청하면 목적지까지 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진료 교수 워크숍 개최

천안병원은 8월 21일 교육관 2층 강당에서 '2014년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진료 교수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90여 명의 진료교수들이 참석했으며, 삼성서울병원 이준행 교수와 인하대병원 김우철 교수가 초청되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임상 권한 부여 및 전문의 업무 평가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2014년도 QI활동 중간 점검

천안병원은 8월 26일 병원 교육관 2층 강당에서 2014년도 QI활동을 중간 점검하는 발표회를 가졌다. '고객 만족도 향상', '진료과정 및 업무 개선 효율', '환자 안전관리', '지표관리', '수익 증대 및 비용 절감' 등 5개 영역에서 활동 중인 28개 팀이 참가해 과제와 그간의 진행 경과를 발표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 책자 발간

구미병원이 '위기대응 매뉴얼 지침'을 발간했다. 사고 예방이 최선이지만 위기 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매뉴얼에는 전산 장애, 화재 발생, 의료기기 장애 등 9개 위기 유형별 대처 요령을 담았다. 병원은 각 위기 상황에 따른 임무 및 역할, 협조체제 구축 요령으로 초기 대응력을 키울 계획이다.

직원(감염관리) 포스터 전시회

구미병원 감염관리실에서는 7월 7일부터 11일까지 본관 지하 1층에서 감염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감염관리 포스터 전시회' 열었다. 포스터를 통해 직원 건강과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했으며 고객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를 강조했다.



정형외과, '고관절 관절경 클리닉' 운영

정형외과가 지역 최초로 '고관절 관절경 클리닉'을 운영한다. 고관절 관절경 클리닉에서는 수술 경험이 많은 황정오 교수가 광범위한 절개 대신 내시경을 통해 고관절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한다. 관절경을 이용한 고관절 수술은 1cm 미만으로 출혈과 수술에 대한 위험성이 적고 흉터를 최소화 하며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급성상기도 감염' 부문 1등급

구미병원이 심평원의 2013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급성상기도 감염'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아 감기 환자 항생제를 적게 쓰는 병원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외래를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등 5개 항목에 대해 진행했으며 구미병원은 처방건당 약품목수에서도 1등급을 받아 호흡기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자에게 적절한 약품을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치병 환우 돕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 동참

루게릭 환자를 돕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구미병원이 동참했다. 8월 27일 부천병원 신응진 진료부장으로부터 이 릴레이 주자로 지목받은 병원장은 8월 28일 병원 내에서 직원들과 함께 물세례를 받았다. 병원장을 중심으로 30여 명의 교직원들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참여했다. 동참하지 못한 직원들은 성금 기부로 그 뜻을 함께 나눴다.



천안병원 동정

김여주 교수 / 내분비내과

대한갑상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관상동맥 연축(갑작스런 수축)으로 진단된 갑상선중독증 환자의 임상적 특징'으로 우수논문상 수상

권세원 교수 / 정형외과

2013.08~2014.07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Health System'에서 유학 마치고 귀원

길효욱 교수 / 신장내과

2014.08~2015.08 미국 'University of Colorado'로 해외유학

오명호 교수 / 소아청소년과

2014.09~2015.08 미국 '국립보건원'으로 해외유학

전섭 교수 / 산부인과

2014.09~2015.08 미국 'Stanford University'로 해외유학

백병준 교수 / 이비인후과

7.1~7 오스트리아 '50th Graz Course'에 참석

박재홍 교수 / 이비인후과

7.28~8.1 미국 'IFHNOS 2014'에서 포스터 발표

최원준 교수 / 성형외과

7.31~8.4 싱가포르 'ASEAN IPRAS 2014'에서 포스터 발표

홍창화 교수 / 정형외과

8.13~16 대만 'PASMIS 2014'에서 연제 발표

소재완 교수 / 정형외과

8.13~16 대만 'PASMIS 2014'에서 포스터 발표

김영창 교수 / 소아청소년과

8.31~9.3 이탈리아 'AMEE 2014'에서 포스터 발표

8월 신규 교원

신경외과 오재상 교수
치과 최우성 교수



구미병원 동정

김진석 교수 / 직업환경의학

8.25~9.5 Nordic Meeting on Agricultural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동원대학교 초청 기관 방문)

황한규 / 호흡기알레르기내과

9.5~12 독일에서 열린 유럽호흡기학회 연제 토의

김태우 / 신장내과

9.6~12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복막투석학회 포스터 발표

순천향의대 동창회 소식

9월 14일 동문화합대회, 준비위원회 모임 개최

순천향대의대 동창회는 7월 2일 서울역 이즈미에서 2014년도 동문화합대회 준비위원회 첫모임을 가진 것을 비롯해 총 3회에 걸쳐 준비 모임을 가졌다. 첫 모임에서는 김범태 회장을 비롯해 총 9명이 참석해 행사 일정과 주요 행사 내용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9월 14일, 일요일에 모교 체육관과 대운동장, 소운동장, 테니스코트, 3D 극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행사 제목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동문화합대회'로 정하고 부제는 'Home Coming Day 2014'로 정했다. 교내 투어와 체육 행사, 자녀들을 위한 영화 상영 등을 준비키로 했다. 준비위원장에는 이규 동문(5회)을 임명하고 강기훈 동문(12회)을 총무에 임명했다. 준비위원은 안상묵(1회), 김범태(2회), 이영홍(3회), 전진우(5회), 남해선(5회), 이창수(5회), 박정훈(6회), 최일석(6회), 박현서(7회), 윤석기(7회), 임수빈(9회), 함정식(10회), 이재형(18회), 이우열(22회), 강은명(의대회장, 본1)이다.



동창회 웹진, 가을 창간 예정



순천향대의대 동창회가 동문들 간의 정보 교류와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웹진을 발간하기로 하고 7월 16일 서초동 음식점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주현수(14회, 간행이사) 편집위원장이 총괄 진행을 담당하여 금년 가을 첫 웹진을 선보일 예정이다.

송파지회, 동창회 임원 초청 모임



순천향대의대 동창회 송파지부는 7월 4일 김범태 동창회 회장과 윤석환(3회) 재경동창회장, 윤석구(8회) 재경동창회 총무와 전진우(5회) 사무총장을 초청해 정겨운 모임을 가졌다.

반가운 동문들을 만나 서로 인사하고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동창회 활동도 소개하고 김범태 회장의 격려의 말도 들었다.

최원림(10회) 송파지부 회장과 조성훈(11회) 총무 및 회원들은 모두 순천향 한 가족으로 친목하는 동문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송파지회! 화이팅!

“인간사랑 생명존중 40년
순천향 100년을 향한 이노베이션”

순천향대학교병원 40주년 제4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가르쳐 드립니다.

일 시 2014. 9. 27(토) 12:00 ~ 17:00

장 소 용산가족공원

Walking Festival 걷기대회

일 시 2014년 9월 27일(토) 12시 부터

장 소 용산가족공원

대 상 지역주민 누구나

내 용 신체계측, 혈압, 혈당, 당화혈색소, 영양상담,
건강상담, 심폐소생술 체험 및 교육

주 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후 원 대한노인회용산지회,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사)한국당뇨협회

문의 02)709-9892, 9900, 9000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Program 행사일정

12:00 ~ 14:00 등록 사전검사
심폐소생술 체험 및 교육

14:00 ~ 14:20 공연

14:20 ~ 14:30 개회식

14:30 ~ 14:40 준비체조

14:40 ~ 15:30 걷기행사, 혈당 재 측정

15:30 ~ 16:30 경품추첨(자전거, 혈당측정기, 혈압계, 만보계 등)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1989년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입원해 위암, 대장암, 콩팥암 등을 수술했고, 지난 6월에는 신웅진 교수님의 집도로 대장암 복원 수술을 받은 대중가요 작곡가 김성유입니다. 제가 입원 중에 느낀 것들을 작곡한 노래입니다.



저는 7월 말에 순천향대천안병원 피부과 이성열 교수님께 치료받은 환자 이00입니다.

저는 7월 말에 순천향대천안병원 피부과 이성열 교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 진료를 받으면서 드디어 '참의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병원들을 다니면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진료차트만 보거나 통명스런 말투로 진료를
해서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해주시고 말하는 것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그에
맞게 대답하시는 이성열 교수님의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이성열 교수님의 모습을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

환자를 진심으로 응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해주시고 말하는 것 덕분에 환자에게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도 교수님처럼 참된 의사 선생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아픈 환자들이 교수님의 친절하고 따뜻한 진료를 받아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칭찬의 글을 남깁니다.

피부와 이성열 선생님은 정말 좋은 참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이달의 의료진으로 꼭 뽑아주세요~



순천향, 인술(仁術)40년 100년을 이어갑니다

하늘뜻 받들어
인간사랑을 실천합니다
순천향의 가치는
생명 존중과 환자의 행복입니다